

기본연구과제 2002-07

충청남도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관리방안

임 선 빈

발 간 사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는 지역이 갖고있는 독특한 전통 문화자원이 경쟁력을 갖춘 지역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찬란한 백제문화와 곳곳한 선비문화의 본 고장인 충청남도에도 많은 전통문화자원이 남아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교문화자원은 ‘양반의 고장’ 충남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충남의 서해안 지역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성리학 수용의 창구역할을 하였고, 내륙지역은 17세기 기호학파의 중심지였으며, 조선시대에 기라성 같은 유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따라서 충남은 다양한 유교관련 유형문화자원과 정신문화자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관리 및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점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충청남도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훌륭한 유교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충남도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유교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등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틈틈히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 임선빈 충청학연구부장에게 감사한다.

200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직)

김 대 길

◆ 차례 ◆

I. 서론	1
II. 충남 유교문화의 특징	3
1. 성리학 도입에 앞장 선 충남유학	3
1) 성리학 도입 이전의 한국유학	3
2) 성리학의 도입과 충남 유학	4
2. 조선후기 기호유학의 중심지	5
1) 기호유학의 흐름과 호서유학	5
2)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중심인물	7
3. 유교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미흡	9
III. 유교문화자원의 현황 및 관리실태	12
1.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현황	12
1) 충남의 문화자원 총괄현황	12
2) 충남의 유교문화자원 현황	13
2. 충남 유교문화재 지정현황	19
1) 충남 지정문화재 총괄 현황	19
2) 지정문화재의 시·군별 분포	21
3) 유교문화재의 지정현황	23
3. 유교문화재의 관리실태	25
1) 유교문화재 지정과정과 문제점	26
2) 유교문화재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28
IV. 충남 유교문화재 관리의 개선방안	34

1. 유교문화재 지정의 전문성 보완	34
2.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수집	37
3. 활용을 통한 관리 모색	43
1) 유교문화재 활용의 배경	43
2) 유형별 현황과 활용방안	46
(1) 교육관련 문화자원	47
(2) 제례관련 문화자원	52
(3) 윤리관련 문화자원	53
(4) 교유관련 문화자원	54
3) 연계관광 자원화	54
(1) 논산시 연산면 일원	55
(2) 논산시 노성면 일원	57
(3) 논산시 연산면-노성면 연계 방안	59
(4) 아산시 남서부-예산시 북동부 일원	59
(5) 대전 - 강경간 답사코스	60
 V. 결론 및 정책제언	64
 ◆ 참고 문헌	67

■ 표 차 례 ■

<표 1> 기호유교문화권과 영남유교문화권의 비교	11
<표 2> 서산시 유교문화자원과 지정문화재 현황	14
<표 3> 논산시 유교문화자원과 지정문화재 현황	15
<표 4> 예산군 유교문화자원과 지정문화재 현황	17
<표 5> 지정문화재 통계 시도별 대비	20
<표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역별 현황(2002.1)	22
<표 7> 충남의 유교문화재 지정현황	24
<표 8> 연도별 유교유적분야 문화재사업비(1982~2001년)	30
<표 9> 시·군별 유교유적분야 문화재사업비(1982~2001년)	32
<표 10>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전공영역별 구성(1·2분과)	35
<표 11>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전공영역별 구성(1·2분과)	36
<표 12> 충남의 향교 현황	49
<표 13> 충남의 서원·사우 현황	50

I. 서론

충남지역은 여말 성리학 수용의 창구역할을 하였고, 17세기에는 기호학과
의 중심지였으며, 조선시대에는 기라성 같은 유학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따
라서 충남에는 유교문화자원(정신문화자원과 유형문화자원)이 많이 남아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관리 및 활용
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500여년 동안 축적되어 온 충남의 전통적 유교문
화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충남에 산재해 있는 유교문화재
에 대한 관리실태를 분석하며, 나아가 유·무형의 유교문화자원 성격규명과
현대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충남 유교문화의 특징에 대해 정리한다. 충남의 문화환
경과 그 특수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되, 조선시대에 집중적으로 형성
된 충남지역의 유교문화적 특수성을 관련인물, 사상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
명한다. 나아가 경북북부 유교문화권과 비교하여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특성
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살핀다. 먼저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유교문화재의 지정현황에 대해
살핀다. 나아가 유교문화자원 가운데 지정된 문화재는 얼마나 되는지 서산
시·논산시와 예산군을 사례로 하여 살펴본다.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관리실
태가 어떠한지 유교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유교문화재 보수 사업비
의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제4장에서는 충남 유교문화재 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유교문
화재 지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유형 유교문화자원(문화재)의

관리실태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같은 연구는 훌륭한 유교문화자원을 갖고 있는 충남도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유교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 충남 유교문화의 특징

1. 성리학 도입에 앞장 선 충남유학

1) 성리학 도입 이전의 한국유학

우리나라 유학의 전래에 대해서는 은주교체기(기원전 12세기)의 기자동래설(이율곡), 진한시대 유입설(이병도), 연나라와의 빈번한 접촉이 있었던 기원전 4세기 무렵 전래설(김충렬) 등의 이론이 있다. 일단 학술사상으로서 유학은 공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유학이 중국사상의 주류가 된 것은 한 문제의 유학의 국교화(기원전 136년) 이후부터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유학의 도입은 이때부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학의 전래시기가 언제인가라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유학의 수용과 성격의 문제이다. 한국에서의 유학의 수용은 고대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이론적인 바탕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삼국시대의 각국은 유학을 바탕으로 율령을 제정하고 국사를 기록했으며, 태학 등의 국립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귀족의 자제에게 유학적 교양을 가르치면서 고대국가의 틀을 세워나갔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교육기관인 태학을 건립하여 유학이념을 토대로 인재를 키웠다. 백제는 한 문제 때 성립한 오경박사 제도를 도입하고 유학을 나름대로 체계화했는데, 특히 왕인박사는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서 일본학자들로부터 일문문화의 시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신라는 정치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윤리사상과 생활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도 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세속오계에는 충효신의, 도의와 같은 유학적인 가치관이 배여 있다.

고려의 유학은 문장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장학과 경전에 절대적인 권

위를 부여하는 훈고학 중심의 학풍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는 불교가 사회를 주도했던 시대였고, 고려중기 무신정권시대를 거치면서 현실 도피적이고 고답적인 현학(銜學)의 경향이 생겨나 유학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가 시대를 주도한 것은 고려말 성리학의 도입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 성리학의 도입과 충남 유학

성리학은 ‘성명의리지학(性命義理之學)’의 준말이며 종래의 유학을 형이상학적으로 재구성 발전시킨 것으로 심성의 수양을 중요시하며 동시에 우주 만물의 존재법칙을 규명하려는 학문이다.

이러한 성리학의 도입은 고려말 충렬왕 이후 안향(安珦), 백이정(白頤正), 우탁(禹倬), 권보(權溥)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도입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중국에서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은 고려 후기의 안향(1243~1306)으로, 당시 침체한 유학의 진흥을 위해 양현고(養賢庫)를 부흥시키고 원으로부터 공자 및 그 제자들의 상과 제기, 악기 등을 들여오고, 주자서를 처음으로 들여왔고, 주자를 흠모하여 회헌(晦軒)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을 수용하는데 정치적으로 앞장선 사람은 안향(安珦)이지 만, 원나라에 10년간 머물면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돌아오면서 성리학 관계 서적을 다량 수입하여, 성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충남 남포 출신의 백이정(白頤正)이다. 백이정의 묘소는 보령군 웅천면 평리 양각산(羊角山)에 있으며, 그곳에 그를 모신新安사(新安祠)와 그의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안향을 계승한 권보(1262~1346)는 『사서집주』를 가져와 주자학의 보급에 힘을 썼고 과거시험 과목에 채택케 함으로써 성리학의 본격적인 도입에 활기를 부여하였다. 우탁(1263~1342)은 단양 출신으로 정이천의 역전을 처음으로 전하여 ‘義理之學 始行矣’라 할 만큼 역전에 깊은 조예가 있었는데, 안동의 예안에서 만년을 지냈다.

이어 이제현(李齊賢), 이승인(李崇仁),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등의 여말선초 유학자들에 의해서 학문적·사상적 수용의 단계에 돌입하였다. 이제현(1278~1367)은 권보의 사위로 당시에 풍미했던 사장의 학문에 반대하고 주자의 실천적 학문을 주장하였다. 백이정의 뒤를 이어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것은 이곡(李穀, 1298~1351)·이색(李穡, 1328~1396) 부자를 비롯한 한산이씨(韓山李氏)가문으로 이들은 지금의 충남 서천군 한산 출신이다. 선조 사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이개(李塏, 1417~1456)는 이색의 증손자요, 기묘명현록에 올라있는 이자(李紆, 1466~1524)도 이색의 후손이다. 정몽주(1337~1392)는 고려조에 충절을 지켜 죽음으로써 불의에 대항하는 의리정신의 표본을 보여 주었으며 동방이학의 비조라 일컬어진다.

2. 조선후기 기호유학의 중심지

1) 기호유학의 흐름과 호서유학

한국의 유교는 16세기에 이르면 ‘조선적 성리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정도로 독자성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특히 16세기 기호유학은 화담계열(花潭系列)이 중심이었다. 16세기의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화담 서경덕(1489~1546), 퇴계 이황(1501~1570), 남명 조식(1501~1572), 율곡 이이(1536~1581), 우계 성혼(1535~1598) 등을 들 수 있다.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은 무인집안 출신으로, 제자를 받아들일 때 문호를 개방하여 양반뿐 아니라 양인·천인에게까지 문하에 출입하게 했다. 이중 충남의 내포지방에 살던 인물로 이지함(李之函)·서기(徐起)·홍가신(洪可臣) 등이 있다.

이지함(1517~1578)은 한산이씨로 보령사람이며 묘소는 보령시 주포면 고정리에 있고 아산(牙山)의 인산서원(仁山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이지함은 화담의 영향을 받아 유학사상뿐 아니라 도가사상, 상수학(象數學)에도 관심

이 많았으며, 상공업도 중시했다. 천문·지리·의학·복서·산수 등에 두루 능통한 박학풍(博學風)의 인물이다. 그는 정통성리학자들과는 달리 의(義)와 이(利)를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여 상업과 수공업을 중시했다. 이러한 학풍은 그의 조카인 이산해(李山海)와 유몽인(柳蒙仁)·김신국(金薰國)등 복인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서기(1523~1591)는 천인으로서 서자인 이중호(李仲虎)의 문인으로 화담 문하에 출입했다. 그는 만년에 공주의 공암에 살다가 그곳에서 묻혔으나, 원래 홍주의 상전리에서 태어나 40대까지 홍주에서 살았으며 선기옥형(璇璣玉衡)을 제작했고, 조헌(趙憲)등과 함께 동방분야도(東方分野圖)를 고쳤다고 한다. 동방분야도는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독자적인 천문체계였다.

홍가신(1541~1615)은 화담의 제자인 민순(閔純, 1519~1591)의 제자이다. 한백겸(韓白謙)·윤효전(尹孝全-尹鑄의 아버지)·홍이상(洪履祥) 등도 민순의 제자이다. 홍가신은 아산의 향현으로 홍주목사를 지낸바 있다.

조선후기 유학의 흐름은 크게 기호학과와 영남학과로 분류할 수 있다.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학문은 그 제자들에게 계승되면서 퇴계학과, 율곡학파가 형성되었고, 나아가 조선후기에는 영남학과와 기호학파의 중심이 되었다. 기호학파의 종장은 율곡 이이로 정치적으로는 주로 서인계(후의 노론·소론)와 관련이 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율곡 이이의 학우인 우계 성혼이나 수몽 정엽, 율곡의 제자와 손제자인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미촌 윤선거,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등이 있으며, 나아가 명촌 니양좌, 명재 윤증, 수암 권상하, 농암 김창협, 남당 한원진, 외암 이간, 미호 김원행, 도암 이재, 녹문 임성주, 삼산재 김이안, 근재 박윤원, 매산 홍직필, 노주 오희상, 화서 이항노, 노사 기정진, 고산 임헌희, 봉서 유신환, 중암 김평묵, 성재 유중교, 간재 전우, 운양 김윤식 등이 모두 기호학파의 학맥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영남학과는 퇴계 이황을 종장으로 하고 정치적으로는 주로 동인계(남인·북인)와 관련이 있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한강 정구, 경당 장흥효, 여헌 장현광, 존

재 이휘일, 갈암 이현일, 밀암 이재, 대산 이상정, 소산 이광정, 손재 남한조, 정재 유치명, 응와 이원조, 한주 이진상, 면우 곽종석 등을 들 수 있다.

조선후기 유학의 주류는 영남학파가 아니라 기호학파였다. 조선시대의 학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발달하였는데, 조선 후기 300년간의 중앙정계는 대체로 기호세력이 주도하였다. 선조대에 사림정치가 실시되면서 영남계의 동인이 우세하여 일시 정권을 잡은 적은 있었으나,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파되어 영남 남인계(경상좌도)의 유성룡은 임진왜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영남 북인계(경상우도)의 정인홍은 서인계의 인조반정으로 쫓겨남으로써, 인조반정 이후에는 대체로 기호계의 서인(노론)이 한말까지 계속적으로 정권을 주도하였고, 기호남인만이 야당으로 남아 외롭게 투쟁했다. 문신관료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던 조선시대에는 끊임없이 정치윤영원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조선후기 여당에 해당하던 기호학파의 유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2)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중심인물

기호학파의 중심인물들은 호서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기호학파의 기호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과 오늘날의 충청지역에 해당하는 호서지방을 가리킨다. 기호학파 가운데 율곡 이이의 적통을 계승하는 김장생·김집·송시열·권상하 등이 모두 충청도 출신이며, 원래 송시열의 수제자였다가 후에 노·소분당이 이루어지면서 갈라선 명재 윤증도 충청도 출신이다. 율곡학과 내에서 인성과 물성이 같으나 다르냐를 놓고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湖洛論爭])이 일어났는데, 이는 율곡의 주기론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洛論])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湖論])으로 갈리었다. 호론의 중심인물인 남당 한원진은 내포의 결성현 남당리[현재의 홍성군 결성면 남당리] 출신이며, 그의 지지자들은 예산의 병계 윤봉구, 매봉 최

정후, 서산의 한간 김한록, 봉암 채지홍 등이 있다. 낙론의 지지자들은 주로 경기에 살았지만, 중심인물인 외암 이간은 온양의 외암리[현재의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출신이다. 한원진의 적통이면서 기철학자로 유명한 낙문 임성주 또한 충청도 청풍 출신으로 공주와 연고가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성리학계의 3대 논변 중의 하나인 인물성동이논쟁은 충남의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인물성동이론에 끼지 않은 유명한 학자·정치인으로는 토정 이지함의 조카로 대북의 영수이면서 영의정까지 지낸 아계 이산해(1539~1609, 예산군 대술면 방산리에 묘소가 위치), 인조초 김장생·장현광과 함께 조정에 징소된 3대산림으로 예학에 뛰어났던 박지계(1573~1635, 신창사람으로 아산의 인산서원에 배향), 효종때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의 억울함을 논하다가 죽임을 당한 김홍욱(1602~1654, 정조대의 벽파 김구주의 조상으로 서산 사람, 성암서원 배향, 묘소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위치), 1611년(광해군 3)에 조광조·김굉필·정여창·이언적 등 4현(四賢)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좌천되었고, 김육이 대동법을 실시하는데 기여한 유명한 학자관료요 교육이론가였던 포저 조익(1579~1655), 권필·윤근수·이호민 등과 함께 동악시단(東岳詩壇)을 만들어 문명(文名)을 날렸으며, 글씨도 잘 썼던 동악 이안눌(1571-1637), 박지계와 조익의 문인이며 성리학과 예설에 밝았던 야곡 조극선(1595-1658), 숙종 때 오래 동안 영의정을 지낸 소론의 영수로, 결성에 우거(寓居)했던 남구만(1629~1711), 홍주의 구봉산 아래 어재동(현재의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재동)에서 출생해서 정조대에 10년 독상(獨相)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남인의 영수 변암 채제공(1720~1799) 등이 있다.

조선시대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山林)도 호서출신이 압도적이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난숙기는 17세기인데, 이 시기의 주도적인 위상에 있던 유학자들은 기호, 그 중에서도 호서출신이 절대 다수였으니, 이는 선비 중의 선비라고 할 수 있는 산림도 예외가 아니었다. 산림은 조선시대 산곡임하(山谷林下)에 은거해 있으며 학덕을 겸비하여 국가로부터 징

소를 받은 인물로 산림지사(山林之士),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리었다. 산림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儒林의 추앙을 받았으며,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다 해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후기 특유의 존재로서, 이들의 명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므로, 과거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더 존중되는 선비였다.

17세기 산림의 거주지별 분포를 보면, 현재 조사된 38명 가운데 충청도가 17명, 경기도가 7명, 경상도가 5명, 전라도·강원도가 각각 2명, 평안도가 1명, 미상 4명이다. 충청도 출신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김장생(연산), 박지계(신창·아산), 강학년(연기·회덕), 김집(연산), 조극선(덕산), 송준길(회덕), 송시열(회덕), 권시(유성), 윤순거(노성), 이유태(금산·공주), 윤선거(노성), 윤원거(노성), 송기후(회덕), 이상(전의), 윤증(노성), 권상하(청풍), 이기홍(연풍) 등이다.

3. 유교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미흡

조선시대에 기라성 같은 유학자를 배출한 호서지역에는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현존하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 관학교육의 중심지였던 향교가 호서지역(충청남·북도, 대전)에 56개소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 향교 전체(234개)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호서지역의 면적이 전국의 17%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교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면적이 전국의 8%에 불과한데, 현존 향교수는 36개소(전국대비 15%)에 달하여, 향교의 밀집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조선시대 지방 유교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원·사우의 건립현황을 보면, 충청도에는 모두 118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사액서원은 39개소였다.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경우 호서의 유교문화자원은 개발잠재가치가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서지역은 기호학파의 중심인물을 다수 배출하였다. 그러나 호서지역은 그 동안 영·호남에 비해 지역학 연구가 활발하지 못해,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유교문화자원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유교문화자원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면, 더욱 많은 유교문화자원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호서의 유교문화자원은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의 대전·공주·부여·금산·보은 등에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의 집중개발이 가능하다. 충청도의 내륙지역인 논산, 대전, 보은, 금산 등은 17세기 기호학파의 핵심적 인물들을 배출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예컨대 서원·사우의 경우 논산·금산·부여 등에 각각 11개소(도합 36개소)나 있는데, 특히 논산에는 대원군의 서원정리시 훼손되지 않았던 서원이 2개소나 있다. 돈암서원은 조선후기 서인(노론)의 중심서원이었으며, 노강서원은 소론의 중심서원으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논산을 중심으로 인근을 기호지역 유교문화권으로 설정하여 체계적인 조사와 개발을 실시한다면, 문화적인 잠재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표 1〉 기호유교문화권과 영남유교문화권의 비교

구분	기호유교문화권 (호서내륙중심)	영남유교문화권 (경북북부중심)	비고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시·군 : 논산, 금산, 대전, 보은, 공주, 부여 · 면적 : 3,820.7km² (전국충면적의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시·군 :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 면적 : 10,771.3km² (전국충면적의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 서 내 륙 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의 약 1/3
유교 문화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곡학과(이이) · 이기일월론과 주기론 · 서인계(노론·소론) · 조선후기 여당 (현실참여 강) · 호서내륙에서 중심인물 배출 ※ 다양한 학풍 공존 (人物性同異論爭) ※ 17세기 전국 山林 38명 중 17명이 호서(충청)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계학과(이황) · 이기이원론과 주리론 · 동인계(남인·북인) · 조선후기 야당 (현실비판 강) · 경북북부에서 중심인물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후기 유학의 주류는 기호학과 · 호 서 내 륙 이 기 호 학 파 의 중심지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 서 지 역 (27 개 시 · 군, 16,558km²)의 향교수 58개소, 서원건립수 135개소 · 호서내륙에 집중 분포(논산지역이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남 지 역 (45 개 시 · 군, 31,351km²)의 향교수 71개소, 서원건립수 318개소 · 경북북부에 집중 분포(안동지역이 중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대비 호서가 영남의 약 1/2 · 호서지역은 유교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미 실시
정책	<p>없 음</p> <p>(백제권 개발사업, 내포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는 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 수립(1999~2000, 약 6억원) · 11년간(2000~2010) 2조 2,666억원 투자예정 · 경북도청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단 설치 	
종합평가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유교문화권의 올바른 가치인식을 위해서는 영남유교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에 균형적인 투자 필요 · 기호유교문화권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현존하는 호서(내륙) 지역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에 준한 개발계획 필요 · 호서 내륙의 유교문화권(논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높아 교부가가치 창출 가능 		

Ⅲ. 유교문화자원의 현황 및 관리실태

1.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현황

1) 충남의 문화자원 총괄현황

근년 시·군별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업이 진행된 결과에 의하면, 동산문화재 이외의 각종 문화유적의 수량이 공주시(1998년 조사) 468건, 보령시(1999) 445건, 서산시(1998) 497건, 논산시(1999) 517건, 부여군(1998) 455건, 서천군(2000) 432건, 홍성군(2002) 668건, 예산군(2001) 447건, 태안군(2000) 494건 보고되고 있다. 이외에 천안과 당진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청양, 아산, 금산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4,400여 개의 유적은 충남지역 유적의 약 65%정도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시·군별 편차는 다소 있지만, 1개 시·군당 대략 500건 내외의 문화유적이 보고되고 있다. 조사상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정문화재의 수량과 문화유적의 분포량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정문화재 수량으로 충남 최하위인 태안군의 경우,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은 수의 문화유적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조사의 기준과 여건에 의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정문화재의 수량과 전체 문화재의 분포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조사 결과, 비지정문화재의 분량이 지정문화재의 10배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문화재자료까지 포함하여 충남 15개 시·군의 지정문화재 총수량이 817점(2002.1)이고, 이를 평균하면 1 시·군의 평균은

54.5건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작성된 9개 시·군의 유적 총수량은 4,373건, 이를 평균하면 1개 시·군당 약 486건이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지정문화재의 광범한 존재는 이에 대한 문화재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비지정문화재 중에는 지정문화재 이상의 가치를 갖는 유적이 포함되어 있고, 가치의 재평가에 의하여 향후 지정문화재로 편입될만한 가치 있는 사례가 다수 있다. 동시에 발견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의 신발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수량은 줄곧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 문제를 제기한다.

2) 충남의 유교문화자원 현황

충남에서 조사된 역사문화자원의 시대별 분포를 보면, 구석기시대부터 최근의 것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골고루 남아 있다. 그 동안 문화유적분포지도 작업의 일환으로 조사된 9개 시·군의 경우, 유적 총수 4,414건 가운데 선사시대의 것이 478건으로 전체의 15%정도, 고대시기의 것이 558건으로 약 15%, 그리고 고려시대의 것 333건, 조선시대의 것 1,361건, 근·현대의 것 148건이며,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약 1317건으로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의 것이 전체의 35%정도 차지한다. 이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유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보다 비지정문화재의량이 훨씬 방대하다. 비지정 문화재중에는 아직 지정문화재 이상의 가치 있는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교육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다. 필자가 유교문화유적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던 서산시·논산시·예산군의 예를 들어보면, 서산시의 경우 문화유적 88점 가운데 18점이 지정문화재이며, 논산시는 172점 가운데 52점, 예산군의 경우에도 172점 가운데 52점이 지정문화재이다(<표> 2·3·4 참조).

〈표 2〉 서산시 유교문화자원과 지정문화재 현황

지역	유교문화자원(수)	지정문화재
대산읍	효자 김학방 정려 / 김홍옥 신도비 / 김홍옥 묘역 / 김적 묘역 / 대산리 비석군 / 김취명 묘역 / 화곡리 비석군 / 김취명 영세불망비 / 평신진지 (9)	
인지면	김두정 묘비 / 송곡서원 / 송곡사 중건기적비 / 유양당 기적비 (4)	[도]서산김두정묘비(유형문화재146) / 송곡서원(문화재자료<유형>207)
부석면	유사 사당 / 신경준 영세불망비 / 송덕사 / 효자 유동원·효부 밀양손씨 정려 / 효자 국현남 정려 (5)	[도]서산송덕사(문화재자료<유형>352)
팔봉면	효자 안만홍 정려 / 효자 기응세 정려 겸 기자현 사당 / 두병골 영세불망비 / 굴포운하지 / 효자 이종형 정려 / 열녀 창녕성씨 정려 (6)	
지곡면	정충신 사당(진충사) / 정충신묘 / 김홍익 신도비 / 김홍익 묘역 / 부성사 / 오현각 구지 / 최몽량·최호주·나주정씨 삼강정려 / 안우세 묘역 / 김유경 신도비 / 김유경 묘역 / 모송사 / 효자 임영주 정려 / 김상한 선정비 (13)	[국]정충신장군유품(중요민속자료36) [도]부성사(문화재자료<유형>199), 정충신사당(문화재자료<유형>206), 정충신묘(문화재자료<기념물>210)
성연면	김운택 신도비 / 정신보, 정인경 묘역 / 정인경 신도비 / 평리 한필동 가옥 / 평리 한제동 가옥 (5)	
음암면	효자 최효민·최만정 정려 / 도당리 비석군 / 이배 가옥 / 충신 김홍익 정려 / 효자 김유경 정려 / 김기현 가옥 / 정순왕후 생가 / 단구대 / 용유대 (9)	[국]서산김기현가옥(중요민속자료199) [도]정순왕후생가(기념물68)
운산면	유기정 가옥 / 김가근 정려 / 최광순 영세불망비 / 이택 신도비 / 이택 묘역 / 이정방 묘역 / 이진백 묘역 / 선정묘 / 여미현청 터 / 유철호 가옥 / 유정노 가옥 / 용장리 비석군 / 명종대왕 태실 및 비 (13)	[도]명종대왕태실 및 비(유형문화재121)
해미면	해미현 구 현청지 / 안홍정지 / 남구만 유희비 / 해미향교 / 홍후 영세불망비 / 해미면 읍내리 비석군 / 해미읍성 비석군 / 여숫골 순교성지 비석군 / 나홍좌 선정비 (9)	[국]해미읍성(사적116) [도]해미향교(기념물117)
고북면	가구리 비석군 / 가구리 김기철 가옥 / 가구리 김기우 가옥 (3)	

시내 (동)	읍내동 비석군 / 성암서원 / 성암서원 중건비 / 관아문 / 외동헌 / 객사 / 읍내리 비석군 / 서산향교 / 망운대비 / 이계련 묘역 / 민형익 가옥 / 효자 유시채 정려 (12)	[도]서산관아문 및 외동헌(유형문화재41), 서산객사(유형문화재137), 서산향교(기념물116) / 읍내리귀부석(문화재자료<유형>204), 성암서원(문화재자료<유형>205), 윤시형선생홍양일기(부속문서1책)(문화재자료<유형>322)
계	88	18

<표 3> 논산시 유교문화자원과 지정문화재 현황

지역	유교문화자원(수)	지정문화재
강경읍	북옥리 옥녀봉 금석문 / 논산 팔괘정 / 논산 임이정 / 논산 죽림서원 / 논산 황산서원비 (5)	[도]임이정(유형문화재67), 팔괘정(유형문화재76) / 죽림서원(문화재자료<유형>75)
연무읍	봉곡서원 / 봉곡서원 앞 비석군 / 금곡서원 / 금곡리 충노비 / 대구서씨 열녀문 / 김수남 정려 / 양응춘 정려 (7)	[도]금곡서원(문화재자료<유형>78)
광석면	윤문거 묘소 / 윤문거 신도비 / 노당사 / 노강서원 / 충신 박이순·박영서 정려 / 항월리 초포 비석군 / 초포사 / 열녀 기계유씨 정려 (8)	[도]노강서원(유형문화재30)
노성면	노성향교 / 궐리사 / 궐리사 석주 / 박상규 기념비 / 무후지고혼불망기념비 / 열녀 공주이씨 정려 / 윤증고택 / 유봉영당(명재영당) / 파평윤씨 종학당 / 종학당 정수루(정수암) / 윤전 재실 / 윤전 신도비 / 파평윤씨 재실(병사) / 덕포선생 고택 / 병사리 파평윤씨 묘역 / 윤창세 묘비명 / 윤순거 신도비 / 윤진 신도비 / 노성면 읍내리 비석군 / 노성현 관아지 / 효자 윤상정 정려 / 양무공 영당 / 열녀 완산이씨 정려 / 김수문 신도비 귀부 / 김임 묘소와 신도비 (25)	[국]윤증가의 유품(국-중요민속자료), 윤증선생고택(국-중요민속자료190) [도]종학당(정수루,숙사)(유형문화재152), 노성궐리사(기념물20), 노성향교(기념물118), 윤황선생고택(민속자료8) / 유봉영당(문화재자료<유형>280), 파평윤씨재실(문화재자료<유형>299), 모선재(문화재자료<유형>307), 충헌공윤전재실(문화재자료<유형>350), 파평윤씨덕포공재실(문화재자료<유형>359), 김임신도비(문화재자료<유형>363),
상월면	영사재 / 박동민 신도비와 묘비 / 박세기 신도비 / 열녀 전주이씨 정려 / 백일헌 영당 / 이삼장군 묘소 / 효자 김중창 정려 / 충신 양함 정려 / 신중사 / 신중리 비석군 / 이삼장군 고택 / 충헌사 / 이사길 묘비명 / 이사길 묘소 / 효자 박상문 정려 / 효자 도처중 정려 (16)	[도]이삼장군유물(유형문화재63), 이삼장군고택(민속자료7)

부적면	휴정서원 / 충곡서원 / 성삼문 유허비 / 효자 이관연 비각 (4)	[도]용서,봉계,성재공 문집판각(유형문화재150), 충곡서원지(기념물12) / 신임일기(문화재자료<유형>351)
성동면		[국]남양전씨 종중문서(보물727)
연산면	김국광 사당 / 모선재 / 영사재 / 김장생 사당 / 염수재 / 영모재 / 열녀 양천허씨 정려 / 효자 김재경 정려 / 고정리 광산김씨 묘역 / 김장생 신도비 / 김겸광 묘소 / 김겸광 신도비 / 김계휘 신도비 / 기계유씨 묘소 / 연산향교 / 전 어필각(성주도씨 사우) / 현감 남준웅 선정비 / 이공겸 부부 효열 정려 / 백석리 비석군 / 연산아문 / 연산현 객사지 / 연산면 연산리 비석군 / 연산현 관아지 / 연산면 연산공원 귀부석 / 귀산서원지 / 임수택 가옥 / 돈암서원 / 돈암서원 묘정비 / 응도당 / 양성당 중수비 / 김집 사당 / 김장생 유허비 / 김한수 영세 불망비 / 임리 양성당지 / 돈암(폐지바위) / 김장생 생가 지 / 충신 이민진 정려 / 청동리 충노비 / 이형손 신도비 / 이철근 묘소 / 이장생 묘소 / 효자 이선익 정려 / 이형손 묘소 / 현감 가평이공 묘소 / 열녀 전주 이씨 정려 / 익안대군 영당 (46)	[국]성주도씨 종중문서(보물724), 연산돈암서원(사적383) [도]연산아문(유형문화재9), 고정리 양천허씨정려(유형문화재109), 김계휘신도비(유형문화재110), 김장생문묘배향교지(유형문화재128), 돈암서원원성경사(유형문화재152), 돈암서원응도당(유형문화재156), 김장생선생묘소일원(기념물47), 연산향교(기념물119) / 임수택가옥(문화재자료<유형>292), 김집선생사당(문화재자료<유형>294), 김집선생교지(문화재자료<유형>295), 익안대군영정(문화재자료<유형>329), 돈암서원비(문화재자료<유형>366), 논산영모재(문화재자료<유형>367), 연산영사재(문화재자료<유형>378),
두마면	금암리 염선재 / 효열 순천김씨 정려 / 경충사 / 충신 이심원 정려 / 효자 김덕 정려 / 김광수 시혜불망비 / 두마초교앞 비석군 / 모원재 / 김국광 신도비 / 왕대리 광산김씨 묘역 / 열녀 의령남씨 정려 / 정장리 하마비 (12)	[도]두계은농재(유형문화재134) / 모원재(문화재자료<유형>308), 금암리 염선재(문화재자료<유형>316), 이심원충신정려현판(문화재자료<유형>338), 무마신원재(문화재자료<유형>379)
별곡면	송문흙 묘비 / 효자 안여택 정려 / 김집 묘소 / 김집 신도비 / 백파선생 영당 / 한삼천리 비석군 (6)	[도]백파선생영당(문화재자료<유형>309), 김집선생묘(문화재자료<기념물>296)
양촌면	이완경 열러비 / 효자 김기서·김재형 정려 / 열녀 전씨 정려 / 효자 김정망 정려 / 삼효열부 정려 / 부여서씨 열녀비 / 인천리 비석군 / 효자 강병흙, 열녀 평택임씨 정려 / 중산리 비석군 (9)	
가야곡면	서정수 묘소 / 열녀 담양국씨 정려 / 효자 이정보 정려 / 열부 은진송씨 정려 / 효암서원 / 효자 강응정 정려 / 서익 묘소 / 부여서씨 제실 / 서필원 인정비 / 성삼문 사당 / 성삼문 묘소 / 성삼문 묘비와 하마비 / 서열묘소 / 행림서원 / 만죽 서선행 묘정비 / 덕은현 치소터 / 경모재 / 이소 선정비 (18)	[도]행림서원(문화재자료<유형>76), 효암서원(문화재자료<유형>87), 성삼문의 묘(문화재자료<기념물>81)

은진면	은진향교 / 교촌리 비석군 / 교촌리 윤상은 불망비 / 손필규 절의비 / 효열 진주강씨 정려 / 선충사 / 효부 경주김씨 기적비 / 은진 초교내 귀부석 / 은진현 관아지 / 은진현 객사지 / 익성군 신도비 / 용산리 전주이씨 익성군과 묘역 / 전주이씨 익성군과 재실 (13)	[도]익성군신도비 및 무석(유형문화재86), 은진향교(기념물120),
채운면	효자 배성철 정려 / 담양전씨 장판각 / 효자 김기범 · 김재준 정려 (3)	
계	172	52

<표 4> 예산군 유교문화자원과 지정문화재 현황

지역	유교문화자원(수)	지정문화재
예산읍	효자 방맹 정문 / 예산읍 비석군 / 예산향교 / 덕잠서원 지 (4)	[도]예산향교(기념물138)
삼교읍	열녀 철원임씨 정려 / 봉소원 지 / 인조선 묘 / 효자 장윤식 정려 / 목은 영당 (5)	[국]이색영정(보물1215-3) [도]예산호서는행본점(기념물66)
대술면	고새울 태봉 태실 / 한씨 효자·효부·열녀 삼정려 / 이산해 묘역 / 이산해 신도비 / 이산해 사당 / 효자 이승유 정려 / 이남규 삼절묘 / 이광임 고택 / 이남규 고택 평원정 / 이상빈 처 신씨 정려 / 강민철 장군묘 (11)	[도]이남규선생고택(유형문화재68), 이광임선생고택(유형문화재83) / 강민철장군묘(문화재자료<기념물>319)
신양면	성흔 묘비 / 정인기 신도비 / 성희웅 사 / 예산 진주강씨·양주조씨 열녀비 / 효자 최순흥·최필현 정려 / 효자 차경정·차명정 정려 / 일산이수정 / 효자 정학수 정려 / 조익 묘역 / 조익 신도비 / 조익 사당 / 조영중 묘비 / 효자 이흥갑 효자비 / 오철상 선정비 / 손응시 신도비 / 현종 태실 / 효자 박도한 정려 (17)	[도]조익선생묘(문화재자료<기념물>284), 조익선생묘지(문화재자료<기념물>331)
광시면	최익현 묘역 / 효자 최승립 정려 / 전근금 효자비 / 효자 박승휴 정려 / 효자 김방언·김치화 부자 정려 / 효자 장진금·장형식 부자 정려 / 웅주 태실 / 열녀 현풍곽씨 정려 / 울산박씨 고택 / 이산보 불천지위 사당 (10)	[도]최익현선생묘(기념물29), 김한중 의사생가지(문화재자료,기념물353)

대흥면	우천사우 / 이약수 묘역 / 이취옹 신도비 / 대흥향교 / 열녀 김진오 처 한양조씨 정려 / 대흥중·고등학교앞 비석군 / 척화비 / 이성만형제 효제비 / 웅주태실 / 동서리 전통가옥 / 사직단지 / 소도독사지 / 대구서씨 시조 서한 묘역 / 대구서씨 시조비 / 하탄방리 박기성 전통가옥 (15)	[도]예산이성만형제효제비(유형문화재102), 대흥향교(기념물136) / 박기성가옥(문화재자료<유형>286), 이한직가옥(문화재자료<유형>287)
용봉면	표씨 열녀비 / 입침리 태봉 태실 / 지식리 도웅 묘역 일원 / 이만 신도비 / 이희손 신도비 (5)	[도]도웅선생묘일원(기념물90)
덕산면	쌍효각 / 덕산향교 / 사천리 이응노 선생 사적지 / 남연군 신도비 / 남연군묘 / 현종 태봉 태실 / 박일양 기적비와 흥봉섭 적선비 / 충의사 / 명빈 밀성박씨와 이현 묘소 / 흥녕군 묘 / 덕산면사무소내 비석군 (11)	[국]윤봉길의사유품(보물568), 매현윤봉길의사사적지(사적229), 보부상유품(중요민속자료(30)) [도]남연군의 묘(기념물80), 이응노선생사적지(기념물103), 덕산향교(기념물137) / 남연군의 비(문화재자료<유형>191)
봉산면	효자 박희적 박기택 정려 / 효자 김의재 처 열녀 창원황씨 정려 / 열녀 단양우씨 정려 / 충신 이억 정려 / 김상준·김현하 부자 정려 / 효자 신호 및 효부 밀양박씨 정려 / 이의배 묘비 / 이의배 신도비 / 이흠 묘비 / 이재배 묘비 / 문열공 이계전 부조묘 / 효자 이후직 정려 / 북병사 정건용 고택 / 열녀 우봉이씨 정려 / 회암서원지 / 효자 조극선·조정교 정려 / 조극선 신도비 / 조극선 묘 (18)	[도]예산효교리매향비(기념물155) / 이의배신도비(문화재자료<유형>186), 이억장군정려(문화재자료<유형>282), 정대영가옥(문화재자료<유형>285)
고덕면	충신 한순 정려 / 효자 박진창 정려 / 효자 이규 정려 / 정치방·정해열 충효정려 / 효자 이우영 정려 / 정동호 가옥 (6)	[국]예산정동호가옥(중요민속자료191) [도]전일상영정 및 한유도(유형문화재127)
신암면	효자 현진묵 정려 / 추사 김정희 묘 / 추사 고택 / 김홍경 묘 / 효자 강만채·강만구 형제 정려 / 화암사내 김정희 필적 암각문 / 월성위와 화순옹주 묘 / 화순옹주 홍문 / 효자 김갑 정려 / 덕잠서원 유허비 / 김구 묘역 / 김구 신도비 (12)	[국]예산김정희종가유물(보물547), 예산의 백송(천연기념물106) [도]김정희선생고택(유형문화재43), 김정희선생유물(훈서지,생원시권,농상지실)(유형문화재44), 화순옹주홍문(유형문화재45), 김정희선생유적(기념물24), 김정희선생필적암각문(기념물151) / 김정희의 묘(문화재자료<기념물>188), 월성위묘(문화재자료<기념물>189),
오가면	오가면 비석군 / 효자 박신흥 정려 (2)	
계	172	52

2. 충남 유교문화재 지정현황

문화재 지정은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를 지정 주체에 따라 나누면,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나뉘며, 시·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무형문화재로 분류된다. 그 외에 1984년에 이전의 비지정문화재였던 대상들을 망라한 문화재 자료가 있다.

1) 충남 지정문화재 총괄 현황

문화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 비중은 경북(1,503), 경남(1,061), 전남(907), 서울(874)에 이어 전국 5위의 수량으로 많은 편에 속하고 있다. 2002년(1월) 현재 충남도 소재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02점(국보 28, 보물 87, 사적 42, 사적 및 명승 1, 천연기념물 15, 중요 무형문화재 7, 중요민속자료 22), 도 지정문화재 325점(유형문화재 135, 기념물 143, 무형문화재 33, 민속자료 14), 그리고 도 지정의 문화재자료 290점(유형문화재 243, 기념물 46, 민속자료 1) 등 도합 817점에 이르고 있다(충청남도 『문화재목록』 2002. 1. 참조).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재가 충남지정문화재의 24.7%(202건), 도 지정문화재가 39.8%(325건) 도 지정문화재자료 35.5%(290건)로서,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충남의 경우 도합 615건으로 전체 지정문화재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시·도별 지정문화재 통계에 나타난 충남의 지정문화재 특징 가운데 유교문화재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문화재자료’ 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문화재자료가 지정문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 1.5%(13/874), 경북 27.5%(413/1503), 경남 26.7%(283/1061), 전남

21.7%(197/907), 전북 22.6%(144/637), 경기 14.2%(98/692), 강원 24.5%(107/436), 충북 7.5%(35/465) 등인데 반해, 충남의 경우에는 지정문화재중 문화재자료의 비율이 전국 최고인 35.9% (291/811)에 달하고 있다.

<표 5> 지정문화재 통계 시도별 대비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해제	총계
(국가 지정문화재)																				
국 보	121	3	3	1	2	0	2	41	8	10	27	7	17	52	9	0	0	303	1	304
보 물	369	13	27	21	7	2	5	147	53	48	86	88	119	250	92	1	1	1330	15	1345
사 적	65	4	4	17	2	1	4	55	9	16	42	31	35	94	44	0	0	428	13	441
사적 및 명승	0	0	0	0	0	0	0	0	0	1	1	0	3	3	1	0	0	9	0	9
명 승	0	0	0	1	0	0	0	0	1	0	0	0	3	1	1	0	0	7	2	9
천연 기념물	11	7	1	10	0	0	2	13	27	23	15	26	43	57	34	30	30	330	102	432
중요무형 문화재	35	3	0	4	1	0	0	5	1	2	4	2	13	6	11	17	17	108	7	115
보유자	63	19	1	12	5	0	0	23	6	3	12	10	24	11	29	0	0	223	143	366
중요민 속자료	48	0	4	0	3	0	1	8	11	21	20	13	32	59	11	0	0	239	4	243
소 계	649	30	39	54	15	3	14	269	110	121	195	167	265	522	203	48	48	2754	144	2898
(시·도 지정문화재)																				
시·도유 형문화재	138	48	41	35	26	28	11	137	133	187	135	175	214	298	326	17	0	1949	199	2148
시·도무 형문화재	27	10	14	8	13	10	1	31	8	9	33	20	26	25	18	13	0	266	32	298
시·도 기념물	20	45	11	47	26	38	37	148	74	101	143	98	172	125	211	52	0	1348	168	1516
시·도 민속자료	27	1	4	2	7	2	0	9	4	12	14	33	33	120	20	8	0	296	15	311
소 계	212	104	70	92	72	78	49	325	219	309	325	326	445	568	575	90	0	3859	414	4273
문화재 자료	13	9	33	17	25	41	17	98	107	35	291	144	197	413	283	2	0	1725	168	1897
합 계	874	143	142	163	112	122	80	692	436	465	811	637	907	1503	1061	142	48	8338	726	9064

(출처 : http://www.ocp.go.kr/statistics/1_1.html)

* 문화재청의 통계는 2002년 8월 현재 충남도의 지정문화재 수량을 811점(국가지정 195, 도지정 325, 문화재자료 291)으로 집계하고 있다.

2) 지정문화재의 시·군별 분포

2002년 1월 현재 충남의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202점, 도 지정 문화재 325점, 문화재자료(도지정) 290점으로 모두 817점이다. 이들 문화재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부여군(134), 공주시(126), 논산시(83), 예산군(66), 천안시(55), 아산시(49), 서산시(43), 홍성군(43), 보령시(41), 금산군(35), 서천군(33), 청양군(30), 당진군(29), 태안군(22), 연기군(22), 계룡출장소(6)의 순서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의 수량에 있어서 시, 군에 따른 편차가 크다. 특히 공주(126), 부여(134)의 경우 월등히 많은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백제 고도라는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연기, 태안, 당진군 등의 지정문화재는 불과 20여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편차는 문화재행정에서 있어서 지역에 따른 행정상의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나아가 지정이 가능한 문화재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시, 군에 따른 지정문화재 수량의 수적 편차가 혹시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평가의 미흡, 다시 말해서 지정 가능한 문화재에 대한 누락에도 요인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포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재 지정의 수량이 저조한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정 가능한 문화재가 아직 미지정의 상태에 있는 데서 오는 이유도 있다.

지정문화재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15점(국보 28점, 보물 87점), 기념물 58점(사적 42점, 사적 및 명승 1점, 천연기념물 15점), 중요무형문화재 7점, 중요민속자료 22점이다. 이들 국가지정 문화재의 시·군별 분포는 부여군(44), 공주시(41), 아산시(14), 예산군(14), 천안시(13), 서산시(12), 논산시(11), 청양군(10), 홍성군(9), 서천군(8), 당진군(8), 보령시(7), 금산군(4), 태안군(4), 연기군(3), 계룡출장소(0)의 순서이다.

〈표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지역별 현황(2002.1)

시·군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합계
천안시	13	16	26	55
공주시	41	54	31	126
보령시	7	17	17	41
아산시	14	13	22	49
서산시	12	14	17	43
논산시	11	42	30	83
계룡출장소		2	4	6
금산군	4	12	19	35
연기군	3	10	9	22
부여군	44	52	38	134
서천군	8	13	12	33
청양군	10	12	8	30
홍성군	9	17	17	43
예산군	14	24	28	66
태안군	4	14	4	22
당진군	8	13	8	29
합계	202	325	290	817

(출처 : 충청남도 『문화재목록』 2002. 1.)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35점(건조물 48, 석조물 61, 공예물 7, 서화류 19), 기념물 143점, 무형문화재 33점, 민속자료 14점이다. 이들 도지정 문화재의 시·군별 분포는 공주시(54), 부여군(52), 논산시(42), 예산군(24), 홍성군(17), 보령시(17), 천안시(16), 서산시(14), 태안군(14), 아산시(13), 서천군(13), 당진군(13), 금산군(12), 청양군(12), 연기군(10), 계룡출장소(2)의 순서이다. 문화재자료(도지정)는 유형문화재 243점(건조 109, 석조 103, 공예 10, 서화 21), 기념물 46점, 무형문화재 0점, 민속자료 1점이다. 이들 문화재 자료의 시·군별 분포는 부여군(38), 공주시(31), 논산시(30), 예산군(28), 천

안시(26), 아산시(22), 금산군(19), 서산시(17), 홍성군(17), 보령시(17), 서천군(12), 연기군(9), 청양군(8), 당진군(8), 태안군(4), 계룡출장소(4)의 순서이다. 도지정 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경우, 논산시 72건(계룡출장소 포함시 78건), 예산군 52건이나 되어 주목된다.

3) 유교문화재의 지정현황

2002년 1월 현재 충남의 유교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43점, 도 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도지정) 156점으로 모두 346점이다. 이들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현황은 논산시(48), 부여군(43), 공주시(42), 예산군(35), 아산시(30), 홍성군(23), 천안시(21), 금산군(19), 보령시(17), 서산시(17), 서천군(11), 연기군(10), 당진군(10), 청양군(9), 태안군(6), 계룡출장소(5)의 순서이다.

유교문화재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3점(국보 1점, 보물 12점), 기념물 9점(사적 9점, 사적 및 명승 0점, 천연기념물 0점), 중요무형문화재 0점, 중요민속자료 21점이다. 이들 유교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시·군별 분포는 아산시(11), 예산군(7), 논산시(5), 홍성군(4), 부여군(4), 천안시(3), 서산시(2), 공주시(2), 금산군(2), 서천군(1), 청양군(1), 당진군(1)의 순서이고, 보령시·태안군·연기군·계룡출장소에는 한 점도 없다.

유교문화재의 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64점(건조물 34, 석조물 15, 공예물 4, 서화류 11), 기념물 72점, 무형문화재 0점, 민속자료 11점이다. 이들 유교문화재 도지정 문화재의 시·군별 분포는 공주시(23), 논산시(22), 부여군(18), 예산군(16), 아산시(10), 홍성군(9), 보령시(7), 천안시(7), 서산시(7), 서천군(6), 태안군(5), 당진군(5), 청양군(4), 금산군(4), 연기군(3), 계룡출장소(1)의 순서이다.

유교문화재의 문화재자료(도지정)는 유형문화재 153점(건조 89, 석조 30, 사적 1, 묘 18, 공예 2, 서적 6, 서화 7), 기념물 3점, 무형문화재 0점, 민속

자료 0점이다. 이들 유교문화재 문화재자료의 시·군별 분포는 논산시(21), 부여군(21), 공주시(17), 금산군(13), 예산군(12), 천안시(11), 보령시(10), 홍성군(10), 아산시(9), 서산시(8), 연기군(7), 서천군(4), 계룡출(4), 당진군(4), 청양군(4), 태안군(1)의 순서이다.

충남의 817점의 문화재 가운데 유교문화재는 346점에 달하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는 202점 가운데 43점에 불과하고 대부분 도지정 문화재이다(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 156점). 특히 문화재자료 290점 가운데 유교분야의 문화재가 156점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 충남의 유교문화재 지정현황

	국가지정	도지정문화재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천안	3	1	6	·	11	21
공주	2	13	8	2	17	42
보령	·	4	3	·	10	17
아산	11	2	5	3	9	30
서산	2	4	3	·	8	17
논산	5	14	6	2	21	48
계룡	·	1	·	·	4	5
금산	2	1	3	·	13	19
연기	·	1	2	·	7	10
부여	4	9	8	1	21	43
서천	1	1	5	·	4	11
청양	1	2	2	·	4	9
홍성	4	1	6	2	10	23
예산	7	7	9	·	12	35
태안	·	2	2	1	1	6
당진	1	1	4	·	4	10
계	43	64	72	11	156	346

지정된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는 논산, 부여, 공주, 아산, 예산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지정문화재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부여, 공주지역 문화재의 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유교문화재의 경우에는 논산지역

이 가장 많고, 아산·예산 지역도 주목된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산에 많은데, 이는 이충무공 관련 유적·유물과 외암리를 중심으로 한 고택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교유적은 주로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3. 유교문화재의 관리실태

문화재는 크게 국보, 보물 등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있으며,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 비지정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현상변경 허가,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요 정책결정 및 보수정비 자문 및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를 직접 접촉하는 관리단체로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단체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의 전반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의 주어진 원칙과 방침에 따라 단순히 집행중심의 행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은 지방의 문화재 정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재는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문화재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유교문화재 지정과정과 문제점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의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 시도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시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다.

우선 문화재청의 중앙 문화재위원회 구성은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6개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분과는 건조물 문화재·민속가옥, 제2분과는 동산문화재, 제3분과는 사적, 제4분과는 무형문화재, 제5분과는 명승 천연기념물, 제6분과는 매장문화재를 담당하며, 특별 분과로 박물관분과가 있다.

도 문화재위원회도 문화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문 분야별 구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충청남도의 지정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면(2001.3.10 개정), 도 문화재 위원회는 2~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8조), 이의 시행규칙(2001.4.30)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분과로 그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1분과 건조물, 사적지 및 민속자료중 가옥에 관한 사항

제2분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에 관한 사항

제3분과 무형문화재 및 사적지를 제외한 기념물, 가옥을 제외한 민속자료

이 규정을 좀더 간략히 정리하면 제1분과는 건축 및 사적, 제2분과는 동산문화재, 제3분과는 무형문화재 및 자연기념물 자료를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도 문화재 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운영은 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의한 운영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10인 내외의 위원과 전체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도 조례 제5조, 제8조의 2). 중앙의 경우 각 분과별

로 위원은 10명 전후, 전문위원이 20명 전후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추어보면, 이는 대략 중앙 위원회의 분과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10인 내외의 위원과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으로는 분과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영역을 살펴보자. 충남의 문화재 위원으로 2002년 현재 11인의 위원과 15인의 전문위원이 있다. 11인의 문화재 위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자치문화국장을 제외한 10인이 전문가이다. 이들의 전공영역을 보면, 고고 2인, 전적 2인, 고건축 2인, 민속 3인, 미술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5인의 전문위원은 고고 3인, 전적 1인, 고건축 3인, 민속 1인, 미술사 1인, 성곽 1인, 근대사 1인, 식물 1인, 광물 1인, 음식 1인, 자연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근대사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실체는 고려시대 전공자이다.

한편, 도 지정 문화재 이외에 시·군에서도 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 수준의 지정문화재와 함께 시·군 수준에서의 문화재 지정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군 지정문화재 행정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주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1995년도에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1995.1.3 조례 제58호, 1997.5.6 개정 조례 제204호)를 제정하여 이른바 ‘향토문화유적’을 지정,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 향토문화유적이 시 지정 문화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에 의하면, 10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다음과 같은 심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① 향토문화유적의 지정과 심의
- ② 향토문화유적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 ③ 향토문화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 ④ 향토문화유적의 매수·수리 및 집중관리에 사항

그러나 향토문화유적의 지정에 있어서 그 종별 등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32건, 기념물 25건 등 도합 57건이 지정되어 있다. 종별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등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략 도 지정의 종별 개념이 원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정된 유형문화재 32건의 내역을 보면, 정자 등 건축물 6건, 정려와 사우 및 열녀비 등 문중 관련 문화재(주로 유교문화재)가 26건이고, 기념물은 고인돌, 입석 등 선사유적 5건, 봉수대 3건, 묘비 등 비석 6건, 고고유적 2건, 기타 역사유적 9건 등이다. 시·군문화재의 경우 유교문화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2) 유교문화재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유교문화재 가운데에는 건조물과 같은 부동산문화재만이 아니라, 서적·문서·회화 등 동산문화재도 유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자원이다. 이러한 유교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의 가치, 역사성, 지정내용, 입지조건, 소유주의 조건, 거주유무 등에 따라 관리 조건과 체계가 다르다. 현재 지방에 소재한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현재 지정된 목조문화재(건축물) 중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원을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재는 도 지정 유형문화재 43호인 김정희선생고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충남지역의 유형문화재는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소유주에 따라 서로 다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교문화재의 소유권은 크게 소유주가 국가나 지방정부인 경우, 소유주가(종교)단체인 경우,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로 나뉘어 진다.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정부인 경우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수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를 위한 부속건물을 만들어 원형 훼손을 막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정희 선생고택이 이에 해당하는

다. 소유주가 향교·서원과 같이 유림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유림(또는 유도회)에서 관리를 하며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보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고택과 정려, 재실, 사당과 같이 문중에서 소유한 문화재는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이다. 관리는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 개인이 담당하고 있다. 고택은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어서 원형을 보존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당인 경우 조상숭배의 관습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고택의 경우 현대적인 문화생활이 원형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당의 경우에도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통적인 모습을 훼손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개인소유라도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보수 및 수리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유교유적에 사용된 문화재 사업비를 보자.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충청남도에서 유교유적에 사용된 문화재 사업비는 모두 33,642,449,000원으로 이는 충남의 문화재사업비 총액(223,898,256,000원)의 15%에 불과하다. 지정문화재만 비교해 보면, 유교문화재의 비중이 42%에 달하는 점에 비하면, 사업비가 적은 편이다.

이들 유교문화재 사업비의 연도별 추이는 1990년까지는 대체로 10억원 이하였으나, 1997년 39억원, 1998년 44억원, 1999년 37억원, 2000년 35억원이었다. 그런데 2001년은 다시 24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교문화재만의 상황이 아니고, 문화재 전체 보수비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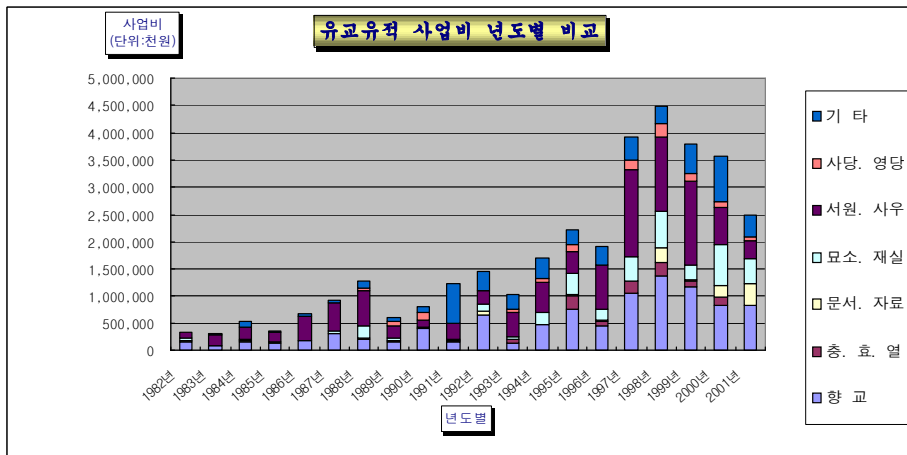
유교문화재 사업비를 유적별로 비교해 보면, 향교 28.67%, 서원·사우 32.53% 등으로, 60% 이상이 향교와 서원의 보수에 투자되고 있다. 유교문화재 사업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유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논산시의 16%를 제외하면, 시·군에 고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9> 연도별 유교유적분야 문화재 사업비(1982~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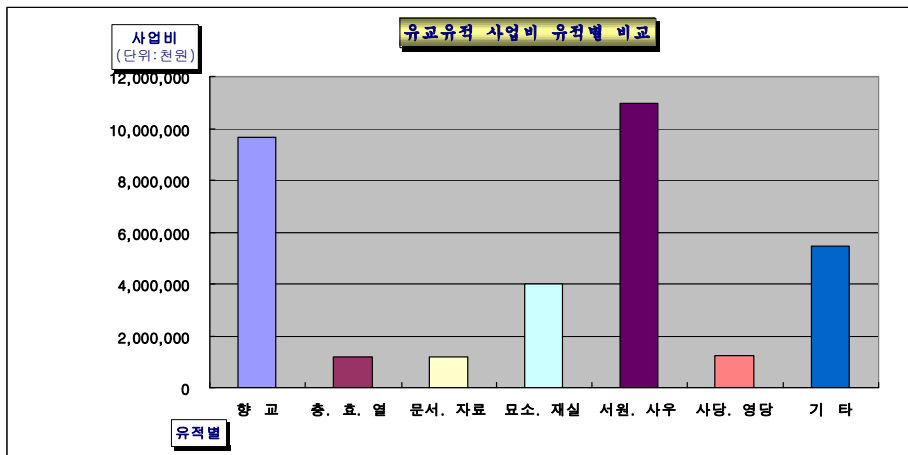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항 교	총. 효. 열	문서. 자료	묘소. 재실	서원. 사우	사당. 영당	기 타	합 계
1982년	150,000		30,000	42,000	116,000		6,000	344,000
1983년	83,000				208,000		13,000	304,000
1984년	158,000		30,500	10,000	226,000		108,000	532,500
1985년	134,000			30,000	171,000		17,000	352,000
1986년	168,600		10,000	10,000	435,000		50,000	673,600
1987년	313,940		6,000	37,000	508,527	3,867	49,000	918,334
1988년	195,250	10,000	10,000	229,585	663,550	26,000	152,000	1,286,385
1989년	162,000	16,000		55,000	209,000	100,000	60,000	602,000
1990년	401,000	30,000			125,000	132,000	128,900	816,900
1991년	164,000	20,000		20,000	292,000		745,700	1,241,700
1992년	648,600		80,000	125,000	234,000		372,000	1,459,600
1993년	132,600	70,000		46,000	444,000	70,000	280,000	1,042,600
1994년	460,000			240,000	564,000	60,000	380,000	1,704,000
1995년	766,535	243,500	30,000	381,285	399,328	127,000	277,034	2,224,682
1996년	457,000	75,000	20,000	200,000	807,100	20,000	318,000	1,897,100
1997년	1,054,000	230,000		441,428	1,598,857	170,000	440,000	3,934,285
1998년	1,366,073	240,000	283,000	656,875	1,377,005	243,000	310,753	4,476,706
1999년	1,176,000	92,000	40,000	265,500	1,552,857	115,000	541,200	3,782,557
2000년	834,648	144,952	214,285	760,000	663,173	120,000	821,442	3,558,500
2001년	820,000	14,000	400,000	444,000	350,000	60,000	403,000	2,491,000
합 계	9,645,246	1,185,452	1,153,785	3,993,673	10,944,397	1,246,867	5,473,029	33,642,449
백분율	28.67%	3.52%	3.43%	11.87%	32.53%	3.71%	16.2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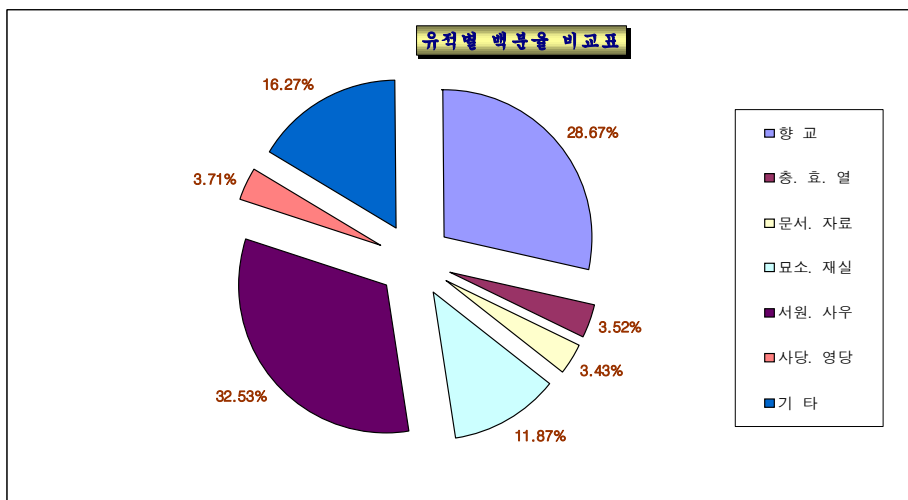
<도 1> 유교유적 사업비 연도별 비교



<도 2> 유교유적 사업비 유적별 비교



<도 3> 유교유적 사업비 유적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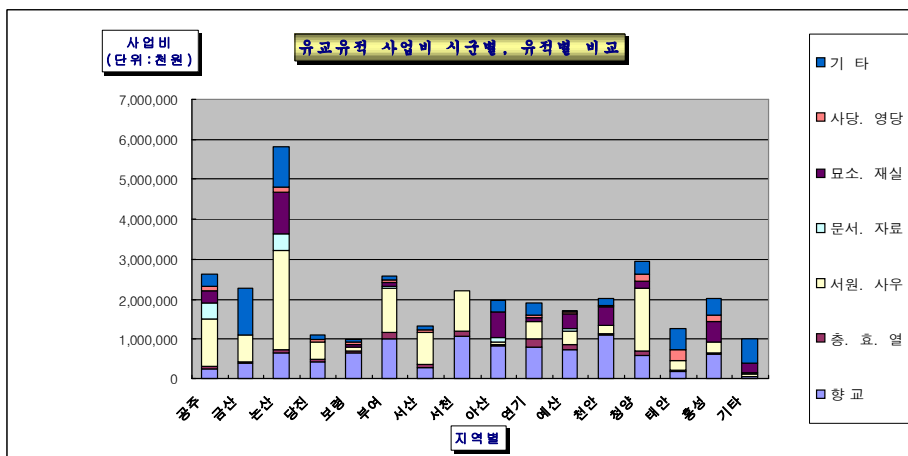


<표 10> 시·군별 유교유적분야 문화재 사업비(1982~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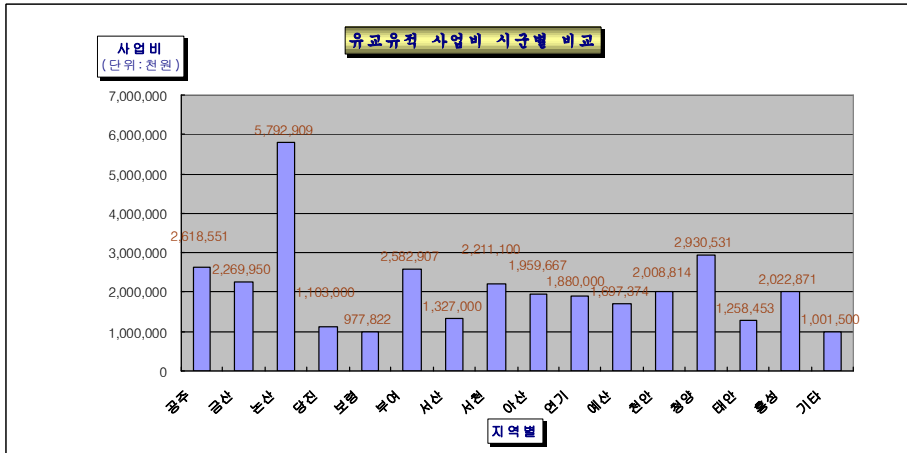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항 교	충. 효. 열	서원. 사우	문서. 자료	묘소. 재실	사당. 영당	기 타	합 계
공주	232,000	81,000	1,180,131	400,000	320,000	110,000	295,420	2,618,551
금산	407,250	23,000	676,000		8,000		1,155,700	2,269,950
논산	657,000	65,000	2,486,723	436,785	1,023,501	140,000	983,900	5,792,909
당진	433,000	58,000	412,000			90,000	110,000	1,103,000
보령	641,500	57,000	97,700		65,000	66,000	50,622	977,822
부여	1,018,740	136,952	1,108,348	60,000	80,000	83,867	95,000	2,582,907
서산	281,000	82,000	802,000			50,000	112,000	1,327,000
서천	1,076,000	113,000	999,100		8,000		15,000	2,211,100
아산	828,169	20,000	60,000	143,000	618,498		290,000	1,959,667
연기	782,000	240,000	417,000		100,000	47,000	294,000	1,880,000
예산	737,504	119,000	331,250	80,000	358,800	60,000	10,820	1,697,374
천안	1,103,400	35,000	195,800		460,000	32,000	182,614	2,008,814
청양	596,035	100,500	1,566,996		190,000	173,000	304,000	2,930,531
태안	185,000	33,000	255,500			245,000	539,953	1,258,453
홍성	605,648	22,000	283,849	10,000	511,374	150,000	440,000	2,022,871
기타	61,000		72,000	24,000	250,500		594,000	1,001,500
합계	9,645,246	1,185,452	10,944,397	1,153,785	3,993,673	1,246,867	5,473,029	33,642,449
백분율	28.67%	3.52%	32.53%	3.43%	11.87%	3.71%	16.27%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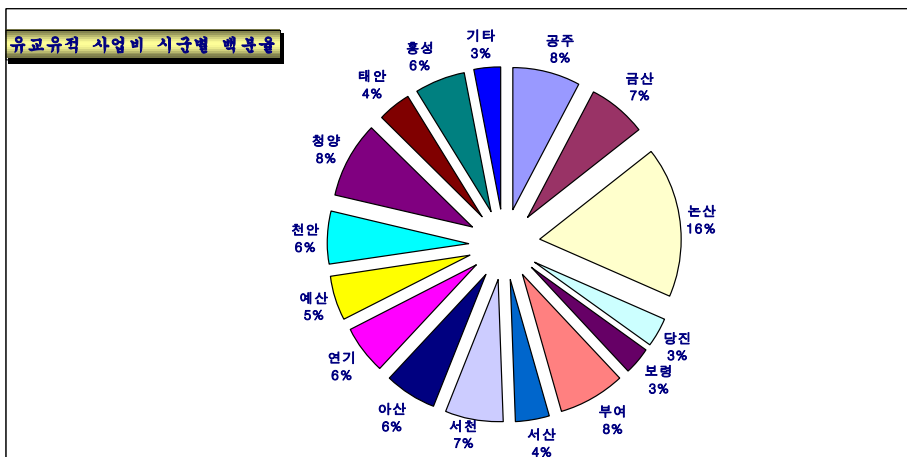
<도 4> 유교유적 사업비 시·군별, 유적별 비교



<도 5> 유교유적 사업비 시·군별 비교



<도 6> 유교유적 사업비 시·군별 백분율



Ⅳ. 충남 유교문화재 관리의 개선방안

1. 유교문화재 지정의 전문성 보완

현재의 도 문화재위원회와 전문위원을 조례에 의한 분과별로 전문 분야를 나누어 본다면, 제1분과(건축 및 사적)는 위원 4인, 전문위원 8인, 제2분과(동산문화재)는 위원 3인, 전문위원 2인, 제3분과(무형 및 자연)는 위원 3인, 전문위원 5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전문 분과별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활한 분과별 운영이 이루어지려면,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를 현재보다 대폭 증원해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시에 증원에 있어서는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필요한 분야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분과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구성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불교문화재 분야, 자연물 분야, 유교문화재 및 근대사 분야 등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문화재의 지정 뿐 아니라 보수 복원 분야에 대해서도 필요한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경상북도의 경우 문화재 위원은 40인 이내로 구성되고, 전문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1999년 11월 22일 전문개정) 현재 문화재 위원은 당연직인 문화재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40명으로 4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 별도의 박물관 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제1분과는 목·석조 건조물 담당, 제2분과는 동산문화재 담당, 제3분과는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가옥제외) 담당, 제4분과는 천연기념물 담당이며, 사립박물관의 설립 인허가를 심의하는 박물관분과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유교문화재와 관련이 깊은 제1분과와 제2분과의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전공영역별 구성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1분과와 2분과의 총인원 48명 가운데 한국사 전공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건축(10명), 미술사(9명), 고고학(6명)의 순이다.

<표 10>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전공영역별 구성(1·2분과)

		고고학	한국사	고건축	미술사 (회화도자)	동양조경학	국문학 (전통, 비교)	동양화	서지학	계
제1분과 (목·석조 건조물)	위원	1	5	4						10
	전문위원	5	4	6	1	1				17
	계	6	9	10	1	1				27
제2분과 (동산문화재)	위원		1		4		3		1	9
	전문위원		4		4		1	1	2	12
	계		5		8		4	1	3	21
합계	위원	1	6	4	4		3		1	19
	전문위원	5	8	6	5	1	1	1	2	29
	계	6	14	10	9	1	4	1	3	48

한편, 사립박물관의 설립 인허가를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박물관분과는 제1분과 4인, 제2분과 2인, 제3분과 3인, 제4분과 1인 등 모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고건축 1인, 고고학 1인, 한국사 2인, 고전문학 1인, 미술사 1인, 국문학 1인, 민속학 1인, 복식사 1인, 수목학 1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상북도의 문화재위원회 운영은 경북의 지정문화재가 1,500여건이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충청남도과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영역의 안배는 참조가 될 것이다.

충남과 비슷한 수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4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화재 위원은 모두 20명, 문화재 전문위원은 모두 27명이다. 이들 가운데 유교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1분과와 2분과의

전공영역별 구성은 <표 11>과 같다.

<표 11>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전공영역별 구성(1·2분과)

		고고 학	한국 사	건축	미술 (회화, 도자) 사	동양 조경	고전 문학	불교 미술	공예	서예	서지 학	계
제1분과 (목·석조 건조물)	위원	1	1	2	1							5
	전문위원	2	2	2		1						7
	계	3	3	4	1	1						12
제2분과 (동산문화 재)	위원		2					1	1		1	5
	전문위원		1		2		1	1		1	1	7
	계		3		2		1	2	1	1	2	12
합계	위원	1	3	2	1			1	1		1	10
	전문위원	2	3	2	2	1	1	1		1	1	14
	계	3	6	4	3	1	1	2	1	1	2	24

이와 같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문화재위원회 운영은 앞으로 충남에서도 참조해야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도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수를 늘려 최소한 전공영역별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행히 최근 마련된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조례 시안에서는 문화재위원 20명, 전문위원 40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 동안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수가 절대 부족하고, 전공영역별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기존 유교문화자원의 문화재 지정은 건물중심으로 지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존 건물의 문화재 지정시 그 건물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건축사적인 의미만 논의되어 왔다. 유교문화자원은 유형의 문화재라도 그곳에 담겨있는 무형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향교·서원의 경우, 건축연대와 중수연대, 건축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거쳐간 인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문화재 지정에는 이와 같은 부분이 소홀하였다. 이는 유교문화재의 지정 시, 유교문화나 조선시대 역사 전공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

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데에서도 기인한다. 이는 한말이나 일제강점기의 근대 문화재 지정에는 건축이나 문서 자체보다도 오히려 관련인물의 정신문화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시·군에서 문화재 지정을 할 경우, 그 기준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재로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 일단 지정작업을 할 경우는 문화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전체적인 검토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 수준의 문화재 지정은 보다 섬세한 규정의 뒷받침 아래 전문성의 뒷받침을 받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군에서의 문화재 지정문제는 좀더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거치고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는 도 문화재위원회에 의하여 지정에 대한 기초 작업이 대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도 지정의 문화재자료와 시·군 지정문화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정리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업무의 비중이 도로부터 다시 시·군의 기초행정 단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군의 문화재 행정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수집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도 문화재 자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재가 보수사업의 대상이다. 그러나 유형의 문화재에는 부동산문화재와 동산문화재가 있다. 그런데 동산문화재는 제대로 된 조사와 현황 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 당장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자료만이 아니라, 동산문화재 특히 인멸되기 쉬운 고문서·전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집이 필요하다.

그 동안 지방 역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수집사업은 대부분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료 조사·수집 사업을 들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하 정문연으로 약칭)에서는 1980년대부터 고문서와 고서의 조사·수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92년까지는 정문연(도서관, 장서각) 자료조사실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1993년 6월부터는 교육부지원 국학진흥연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조사 수집된 내용을 보면, 1980년부터 1992년까지는 고문서 22만 3,253점, 고서 30만 7,305책, 1993년 6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의 고문서 42만 5,000점, 고서 20만 6,000책이 조사·수집되어, 모두 고문서 64만 8,253점, 고서 51만 3,305책에 달한다.

이와 같이 정문연에서 20여년 만에 방대한 자료를 조사·수집할 수 있었던 원인은 효율적인(?) 수집대상의 선정과 수집방법에 기인한다. 즉 정문연의 자료수집방법은 흩어져 있는 자료를 일일이 찾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지역의 문중(종가)이나 기존의 자료수집가를 방문하여 이들의 자료를 빌려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연구자나 향토사가들의 역할은 대개 자료소장처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문연과 자료소장자의 가교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그 동안 정문연이 대전·충남지역에서 수집해간 자료는 1984년에 고문서 4,746점, 1997년에 고문서 1,864점과 고서 1,034책, 1998년에 고문서 8,479점과 고서 322책, 1999년에 고문서 2,278점과 고서 204책, 2000년에 고문서 305점, 합계 고문서 17,672점과 고서 1,560책이다. 이를 소장처별로 살펴보면, 서산의 경주김씨(고문서 422점), 논산의 파평윤씨(고문서 4,261점), 논산의 노강서원(고문서 63점), 청양의 연일정씨(고서 64책), 공주의 대구서씨(고서 29책), 대전의 김영한 소장자료(고문서 8,284점, 고서 941책), 부여의 함양박씨(고문서 1,886점), 예산의 한산이씨(고문서 2,451점, 고서 526책), 청양의 단양우씨(고문서 305점) 등이다.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으로 약칭)에서도 1987년부터 지방사료의 조사 수집작업을 실시하였다. 국편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방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국에 499명의 지방사료 조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수는 50명이다. 국편에서는 1988년도부터 2001년 11월에 이르기까지 21차례의 사료조사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각 시·도별로 지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편의 사료조사수집사업의 목적은 사장·유실되어 가는 지방사료를 효율적으로 조사 수집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사와 지방사의 상호 보완 구조 및 한국사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

국편의 지방사료조사수집은 국편 직원이 직접 출장을 다니면서 자체수집하는 방식과, 지방에 거주하는 사료조사위원이나 연구자에게 지방사료수집 지원비를 지원하여 수집하는 방식의 2가지가 있다. 1996년까지는 자체수집에만 의존하여 왔으나, 1997년부터는 사료수집 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 국편에서 행한 국내 사료 수집·정리현황은 고서 3,042책 162,912면, 성책류 고문서 1,257건 35,144면, 낱장 고문서 12,058건 23,885면에 이른다. 그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조사·수집해 간 현황을 보면, 1989년에 고문서 186점과 고서 123책, 1996년에 고문서 49점과 고서 51책, 1997년에 고문서 265점과 고서 187책, 1999년에 고문서 77점, 2001년에 고문서 236점 등 모두 고문서 813점과 고서 361책을 조사·수집해 갔다. 이와 같은 실적은 국편의 전체 수집량이나 다른 시·도의 수집량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1997년의 경주이씨가 고문서 조사수집정리(이관용), 호서지역 문중소장 고문서 조사수집(이해준)과 2001년의 대전·충남지역 향교소장 자료의 수집(김영한) 등 3건이 지원사업이었다. 대전·충남지회장(김영한) 명의로 이루어진 2001년의 수집사업은 이 지역 사료조사위원 모두가 참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21개 향교의 소장자료가 수집되었다.

회덕향교(대전시), 직산향교(천안시), 보령향교·남포향교·오천향교(보령시), 아산향교·온양향교(아산시), 해미향교(서산시), 연기향교·진의향교(연기군), 임천향교·석성향교·부여향교(부여군), 정산향교(청양군), 홍주향교·결성향교(홍성군), 대홍향교·예산향교·덕산향교(예산군), 당진향교·면천향교(당진군)

정문연과 국편의 지방사료수집은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의 자료는 자료소장자와의 협의하에 기증이나 기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지역의 자료가 정문연이나 국편에 기증될 경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원자료의 도난이나 분실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지역자료(문화재)가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은 지방문화의 입장에서 매우 애석한 일이다.

중앙에서 지방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조사·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지방의 현실은 삭막하다. 그 동안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조사·수집 사업은 거의 없이, 일부 향토사가들의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지방사료가 조사·수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향토사연구자들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비를 들여가면서, 내가 아니면 이 소중한 자료를 누가 챙길 것이냐 하는 사명감을 갖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방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외로운 길을 걸어 왔다.

지방에서 향토사연구자들이 주로 등장하는 시점은 1980년대부터이다.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으로 지방의 전통문화가 여지없이 파괴된 후, 1980년대에는 내무부의 주도하에 전통가꾸기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향토사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져, 이때부터 대부분의 시·군에 향토사연구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다. 지방문화원에서도 1985년부터 향토사연구사업을 가장 큰 사업의 하나로 착수하면서, 전통문화의 동산지기를 자처하였다. 1994년에 만들어진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8가지 사업 가운데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대전·충남지역의 향토사 연구 단체 가운데에서는 충남향토연구회, 공주향토문화연구회, 서산향토연구회, 당진향토문화연구소, 천안향토문화연구회, 예산향토사연구회, 홍주향토문화연구회 등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향토사 연구단체들은 매년 향토지를 간행하고 있으며, 대개 향토지마다 한 두점의 자료를 발굴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주목할 만한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충남향토연구회의 경우 회지에 소개한 고문서와 서책 중에서 이형(李衡)의 왕지(王旨)와 선조대왕의 한글교지는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받는 개가를 올렸으며, 권준의 호구단자, 운부군옥, 윤돈의 동복화합입의(同腹和合立議), 초려 이유태 유고 등은 충남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충남 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것도 다수 있다. 또한 병자일기(丙子日記), 명성황후 어찰과 구강(具康)의 시가, 한글본 호연재유고 등이 주석되거나 연구되어 간행되었으며, 기타 많은 자료들이 학계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금산문화원에서는 고문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자료를 영인하고 이를 해제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소개된 고문서는 용화리 금란계 관련문서 5점, 상산김씨 관련문서 29점, 금산향교 관련문서 19점, 종용사 관련문서 7점, 청풍사 관련문서 15점, 구암사 관련문서 5점, 진산향교 관련문서 2점, 성곡서원 관련문서 5점, 용강서원 관련문서 24점 등이다.

충청남도에서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지역자료의 조사수집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정사료실에는 충청도정과 관련된 고문서 및 서책이 수집되어 있다. 2002년 현재 고문서 671점, 고책자 569권, 사진 274점, 문집 183권, 실물 209점, 탁본 29점, 지도 25점, 도안 29점, 행정장비 102점, 서류철 110점, 관광그림엽서 24점, 개도 100년 자료 19점, 합계 2,344점이 수집·관리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개인(김영한·서봉식)의 헌신적인 열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외에도 몇몇 기초자치단체나 문화원, 사설 박물관 등에서 향토사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진열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지방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주체적으로 정리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경우가 지역자료의 빈곤으로 인해 시·군지의 편찬조차도 중앙의 연대기 자료나 중앙학계의 연구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지의 지역에 따른 차별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시·군지 베끼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지역의 향토사가나 지역연구자들에 의해 지역자료의 조사수집이 수행되고는 있으나, 이와 같은 작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직도 많은 경우가 ‘보물찾기’식의 자료발굴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료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관리할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 향토자료관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유물 중심의 운영이다.

지방사료의 조사·수집이 중앙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은, 앞으로 면지나 마을지를 편찬하기 위해서도 자료를 찾기 위해 모두가 서울로 달려가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 동안 정문연이나 국편에서 행한 지방 사료의 조사수집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도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지방의 자료를 조사·수집하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과 시각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의 취사선택에서부터 그 기준은 항상 중앙에 있으며, 수집과정에서도 지방은 중앙의 대리인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지방의 자료, 향토자료의 수집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업도 국내사료조사수집보다는 해외자료수집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 투자되는 예산규모만 비교해 본다면 하더라도, 2001년의 경우 국내사료조사수집 예산이 1억인데 반해 해외자료수집이전사업비는 10억에 달했으며, 2002년의 경우에는 국내사료조사수집비가 1억, 해외자료수집이전사업비는 20억에 달한다.

한편, 한번 외지로 유출된 자료는 되돌아오기 어렵다. 필자는 수 년 전에 홍성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02년과 1903년에 홍주군에서 생산된

문건 200여건이 홍성군에서 유출되어, 모 골동품상에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일괄 문서들은 주로 최홍석이 1902년 3월 7일부터 1903년 3월 22일까지 홍주군수로 재임하던 시기에 생산된 문서로 추측되는데, 최군수의 후손들이 보관하다가 외지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당시 홍성군에 이 문서의 구입을 권유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제 이 자료는 문서가 생산된 홍성으로 되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지역문서가 도난 당하거나 매매되어 외지로 유출될 경우, 흔히 그 문서는 고가로 팔리기 위해 문서더미가 철저하게 분해된다. 일괄문서가 분해된다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사료로서의 가치, 기록물로서의 가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반감된다. 따라서 지역자료의 외지유출은 적극 막아야 한다.

이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자료에 대한 조사·수집·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사 자료의 조사·수집이 진행 될 경우, 무엇보다도 전문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문서의 조사 수집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자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가치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자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다. 일반인은 무심히 보아 넘길 사소한(?) 자료가 전문성을 지닌 향토사가의 손에 의해 ‘보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3. 활용을 통한 관리 모색

1) 유교문화재 활용의 배경

그 동안 문화재 정책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훼손됨이 없이 관리하는 것이 문

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문화재를 통하여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는 이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문화재를 알고 찾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유교문화재의 경우 단순한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교문화공간의 활용은 관련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고려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형문화재는 위치의 고정성, 또는 이동의 용이성에 따라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 분류된다. 유교문화재의 경우, 부동산문화재만이 아니라, 서적·문서·회화 등 동산문화재도 유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자원이다.

무형문화재는 의식, 가치지향, 사상체계 등과 직접 관련되므로 유교문화를 조사·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유형의 유교문화재를 정비하거나 복원·재현할 경우, 유교의 무형문화재는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유형의 유교문화공간은 단순히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보다는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유교문화공간에서 과거에는 많은 유교의식, 교육, 교화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기능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향교와 서원 등에서 있었던 유교의례와 교육은 이제 그 명맥조차 잇기 어려운 실정이다. 석전제와 봉심에서조차도 의례가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시대의 정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동구밖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대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정려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원래 정려는 일반인에게 훌륭한 행실을 기리고 장려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와 같은 본래의 기능을 고려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유적 정비, 백제역사재현단

지 조성사업 등 역사문화유적의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전시·공연 확대, 고궁의 궁중의례 및 궁중생활상 재현전시, 문화재 야간조명 등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운영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여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외국인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경쟁적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중복 투자되거나 재원대책 없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은 공주·부여의 백제고도를 중심으로 한 찬란한 백제문화와 함께, 조선시대 유교문화의 본고장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충남지역은 고려말 성리학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조선시대 예학의 중심지였다.

한국사람들은 예로부터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특히 17세기 이후 세계문화상에서 유래가 없는 예학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예학발달에 큰 역할을 한 주역들이 충청인들이다. 한국의 예문화를 중흥 발전시킨 이는 예학의 종장으로 평가되는 김장생이다. 김장생은 상례를 정리하여 한국 민간 예서의 효시가 된 상례비요와 가정의례의 이론서 가례집람을 지었다. 그 후 그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17-18세기 한국의 학문계와 정치계를 주도했던 대학자, 대정치가들이 대거 배출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예학자로 이름 난 이는 김집,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유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공주, 대전, 논산 등에서 살았던 충청인들이다. 그들은 각종 의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 연구에 지나지 않던 예학을 학술적 연구로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무의식적인 가례 준행을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학문화했다.

특히 이 지역은 산림세력이 강했던 곳으로, 산림이란 조선시대 한 학파나 지역 사대부의 지도자, 또는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말로, 원래 산림처사, 산림학자와 같이 관직을 하지 않고 은거한 인물을 상징하는 수식어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초야의 선비가 아닌 국가적으로 대우받은 사람의 명망가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산림은 한 지역 사대부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역 사람의 천거권까지 보유하여 국정의 방향과 운영, 특정 봉당이나 정파의 성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충남지역은 유교문화의 주요한 학파와 세력을 지녔던 지역인 만큼 배출된 인물이 많다. 또한 유교문화자원을 중부권의 주요한 대학문화와 연계 가능한 지역이 많으며, 주요 문화유산과 인접 및 포함한 지역이 많은 부분을 고려할 때, 전통 문화 체험 관광 및 대학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한편 국내 항일 문화의 중심지인 독립기념관의 소재지라는 특성과 연결하여 ‘충’ 문화의 중심지로서 특성을 찾아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접한 대전광역시 및 천안시 등 중부의 인구밀집지역이 함께 병행하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중심, 자모중심, 초등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2) 유형별 현황과 활용방안

문화자원을 유형분류하는 기준은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이것을 다시 중분류하면 각각 2~6가지 유형으로 소분류되어 총 17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수십가지 유형으로 세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구분되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분류체계는 분류 항목이 세분될수록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교문화자원 조사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교문화자원 조사에 있어서는 분류체계를 조사 취지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유교문화자원들은 정적이며, 교육적이고 지루해서 재 방문율이 적은 문화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물, 특정 인물, 혹은 전통 의례나 한학 중심의 문화개념이 강조된 데 따른 부정적 인식일 뿐, 실제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한다면 발전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활용을 전제로 할 때, 유교문화자원(공간)은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관련 문화자원, 제례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자원, 교유관련 문화자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교육관련 문화자원

전통시대의 유교문화 교육기관으로는 향교와 서원·서당 등이 있다. 향교는 조선시대 일읍일교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고을에 세워진 관학기관으로, 충남에는 36개소의 향교가 현존한다. 이들의 시·군별 분포는 부여군에 4개, 보령시·아산시·서천군·논산시·천안시·예산군에 3개, 금산군·서산시·연기군·청양군·홍성군·당진군에 2개, 공주시와 태안군에 1개의 향교가 현존하고 있다. 충남의 36개 향교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없고, 모두 도지정문화재이다. 공주향교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오천향교를 제외한 34개 향교는 도지정 기념물, 오천향교 대성전은 도지정 문화재자료이다. 서원·사우 가운데 연산 돈암서원은 국가지정 사적에 해당하고, 논산의 노강서원·부여의 홍학당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충현서원 유적, 고간원지, 충곡서원지, 노성필리사, 창열사 등은 도지정 기념물이며, 그 외 34건이 문화재자료(도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향교 서원은 오늘날에도 그 기능을 살려 사회교육기관화가 가능하다. 우리문화에 대한 주체적 이해의 공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닫힌 문화형식에서 열린 문화를 지향하는 교육 공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학교교육·제도교육과의 차별성, 문화자본 개념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구성, 일반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차별

화된 특화 등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으로는 예절교육, 동양고전교육, 다양한 형태의 서당교육, 유교문화 특별강좌 등을 행하고, 나아가 향교·서원 공간에서 관례행사, 전통 혼례 및 수연 행사, 백일장 행사, 향교석전제와 봉심의 일반인 참여 유도, 강학례 행사의 이벤트화, 향례 행사의 이벤트화, 선비문화제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향교·서원이 성현의 위패를 모신 신성한 공간이지만, 지나치게 엄숙함만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보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활용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오늘날처럼 전통문화의 산실인 향교·서원을 21세기의 주역인 젊은 세대가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향교·서원이 존재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신세대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눈높이 교육, 눈높이 이벤트가 필요하다.

향교는 과거 읍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했었기에 오늘날에도 도심지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주말이나 저녁에 도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향교의 명륜당에서 국악 공연이나 현악4중주와 같은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최근 일부 사찰에서는 주말에 대웅전 앞뜰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데, 이는 향교·서원의 활용에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표 12〉 충남의 향교 현황

시·군	향교명	위 치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천안시 (3)	稷山鄉校	직산면 군서리 164-1 (향교골)	도지정기념물 109호(97.12.23)
	木川鄉校	목천면 교촌리 124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08호(97.12.23)
	天安鄉校	유량동 190-2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0호(97.12.23)
공주시 (1)	公州鄉校	교동 184	도지정유형문화재 75호(78.3.31)
보령시 (3)	保寧鄉校	주포면 보령리 47-1	도지정기념물 112호(97.12.23)
	藍浦鄉校	남포면 옥동리 9	도지정기념물 111호(97.12.23)
	鰲川鄉校	오천면 교성리 166	도지정문화재자료 137호(84.5.17)
아산시 (3)	牙山鄉校	영인면 아산리 642 (향교골)	도지정기념물 114호(97.12.23)
	新昌鄉校	신창면 읍내리 320-1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3호(97.12.23)
	溫陽鄉校	읍내동 209 (향교말)	도지정기념물 115호(97.12.23)
서산시 (2)	海美鄉校	해미읍 오학리 226	도지정기념물 117호(97.12.23)
	瑞山鄉校	동문동 655	도지정기념물 116호(97.12.23)
논산시 (3)	魯城鄉校	노성면 교촌리 237	도지정기념물 118호(97.12.23)
	恩津鄉校	은진면 교촌리 77	도지정기념물 120호(97.12.23)
	連山鄉校	연산면 관동리 437	도지정기념물 119호(97.12.23)
금산군 (2)	珍山鄉校	진산면 교촌리 355	도지정기념물 122호(97.12.23)
	錦山鄉校	금산읍 상리 4 (비호산 아래)	도지정기념물 121호(97.12.23)
연기군 (2)	燕岐鄉校	남면 연기리 33	도지정기념물 123호(97.12.23)
	全義鄉校	전의면 읍내리 149-1	도지정기념물 124호(97.12.23)
부여군 (4)	林川鄉校	임천면 군사리 213	도지정기념물 127호(97.12.23)
	鴻山鄉校	홍산면 교원리 233	도지정기념물 128호(97.12.23)
	扶餘鄉校	부여읍 동남리 445-1	도지정기념물 125호(97.12.23)
	石城鄉校	석성면 석성리 647	도지정기념물 126호(97.12.23)
서천군 (3)	韓山鄉校	한산면 지현리 389	도지정기념물 131호(97.12.23)
	庇仁鄉校	비인면 성내리 4구 169(교촌마을)	도지정기념물 129호(97.12.23)
	舒川鄉校	서천읍 군사리 315	도지정기념물 130호(97.12.23)
청양군 (2)	靑陽鄉校	청양읍 교월리 34-1	도지정기념물 133호(97.12.23)
	定山鄉校	정산면 서정리 516-2	도지정기념물 132호(97.12.23)
홍성군 (2)	結城鄉校	결성면 읍내리 586 (교촌골)	도지정기념물 134호(97.12.23)
	洪州鄉校	홍성읍 대교리 교동	도지정기념물 135호(97.12.23)
예산군 (3)	禮山鄉校	예산읍 향천리 132-1	도지정기념물 138호(97.12.23)
	大興鄉校	대흥면 교촌리 538	도지정기념물 136호(97.12.23)
	德山鄉校	덕산면 사동리	도지정기념물 137호(97.12.23)
태안군 (1)	泰安鄉校	태안읍 동문리 725	도지정기념물 139호(97.12.23)
당진군 (2)	唐津鄉校	당진읍 읍내리 215-1	도지정기념물 140호(97.12.23)
	沔川鄉校	면천면 성하리 513	도지정기념물 141호(97.12.23)

<표 13> 충남의 서원·사우 현황

시·군	명칭	소재지	舊·別名	창건연대	사액연대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천안시 (3)	道東書院(址)	병천면 병천리	竹林書院	인조기축	1676	
	兩賢祠	풍세면 삼태리				
	六賢祠	풍세면 풍서리				
공주시 (6)	忠賢書院	반포면 공암리	孔巖書院	1581	1624	忠賢書院遺蹟 : 기념물 46 (84.7.26.) 忠賢書院 : 문화재자료 60 (84.5.17.)
	肅慕殿 (東鷄祠,三隱閣)	변포면 학봉리		936동계사 1394삼은각 1456초혼단		鷄龍山招魂閣址 : 기념물 18 (77.7.4.) 三隱閣 : 문화재자료 59 (84.5.17.) 肅慕殿 : 문화재자료 67 (84.5.17.)
	德泉君 祠宇	의당면 태산리		1739 이건		문화재자료 61 (84.5.17.)
	甲寺 表忠院	계룡면 중장리		1738(?)		문화재자료 52 (84.5.17.)
	尹烜祠宇	계룡면 유평리		?		忠憲公尹烜祠宇 : 문화재자료 283(86.11.19.)
	忠節祠	금홍동 사송정마을	鳴灘書院	1851 이건	1585(?)	문화재자료 20 (84.5.17.)
보령시 (3)	花巖書院	청라면 장산리		1610	1686	문화재자료 138(84.5.17.)
	光城府院君 祠宇	청소면 채정리		?		문화재자료 143(84.5.17.)
	水弦祠	미산면 용수리		1921		문화재자료 142 (84.5.17.)
아산시 (5)	金谷書院(址)	배방면 중리		1837		
	道山書院(址)	도고면 도산리	道峯書院	1670		
	仁山書院(址)	염치면 서원리	五賢書院	1610		
	靜退書院(址)	배방면 중리		1634		
	顯忠祠	염치면 백암리		1706	1707	牙山李忠武公遺墟 : 사적 155 (67.3.18.)
서산시 (5)	聖巖書院	읍내동		1719	1721	문화재자료 205 (84.5.17.)
	松谷祠(松谷書院)	인지면 애정리	仁政書院	1694(?)		문화재자료 207 (84.5.17.)
	富城祠	지곡면 산성리		선조대		문화재자료 199 (84.5.17.)
	崇德祠	부석면 강당리		1864		문화재자료 352
	振忠祠(鄭忠信祠堂)	지곡면 대요리		1897		문화재자료 206 (84.5.17.)

시·군	명칭	소재지	舊·別名	창건연대	사액연대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논산시 (11)	龜山書院	연산면 오산리	龜巖書院	1700		
	金谷書院	연무읍 금곡리	金谷祠宇	1687		문화재자료 78 (84.5.17.)
	魯岡書院	광석면 오강리		1675	1682	유형문화재 30 (74.8.31.)
	遯巖書院	연산면 임리		1634	1659	사적 383 (93.10.18.)
	鳳谷書院	연무읍 고내리	鳳谷壇所	1712		시 향토유적 15
	竹林書院	강경읍 황산리	黃山書院	1626	1665	문화재자료 75 (85.12.31.)
	忠谷書院(址)	부적면 충곡리	八賢書院	1692(확인)		기념물 12 (76.10.4.)
	杏林書院	가야곡면 육곡리		1867		문화재자료 76 (84.5.17.)
	孝巖書院	가야곡면 산노리	葛山祠	1713		문화재자료 87 (84.5.17.)
	休亭書院	부적면 신흥리		1699		시 향토유적 16
	闕里祠	노성면 교촌리	春秋祠	1716		기념물 20 (78.12.30.)
금산군 (11)	礪溪書院(址)	금성면 하류리	草廬書院	1632		
	山泉齋書院(址)	남일면 은대리	山泉齋	1663		
	星谷書院(址)	남이면 성곡리		1613	1663	
	龍江書院	제원면 용화리		1716		문화재자료 19 (96.2.27.)
	龜巖祠	부리면 평촌리		1883		문화재자료 301 (88.8.30.)
	德山祠	부리면 불이리		1962		문화재자료 281(85.12.31.)
	柳谷祠	금성면 하류리	鄉祠宇	1664	1702	
	表忠祠	복수면 곡남리	趙憲祠堂	1649		문화재자료 20 (96.2.27.)
	從容祠	금성면 의총리		1647	1663	七百義塚 : 사적 105
	淸風祠	부리면 불이리	不二影堂	1672		문화재자료 16 (96.2.27.)
	忠烈祠	금성면 상가리		1831		문화재자료 17 (96.2.27.)
연기군 (4)	雷巖鄉祠(址)	전의면 관정리	雷巖書院	1699		
	鳳巖書院(址)	서면 봉암리	변암서원	1651	1665	
	合湖書院	동면 합강리		1716		문화재자료 41 (97.12.23.)
	文節祠(梅竹軒祠宇)	금남면 달전리		1967		문화재자료 40 (97.12.23.)
부여군 (11)	良谷書院	임천면 교원리	良谷書院	1740		
	東谷書院	세도면 동사리		1928		문화재자료 92 (84.5.17.)
	退修書院	임천면 만사리	盤山書院	1757		문화재자료 91 (84.5.17.)
	蓬湖書院	석성면	蓮湖書院			
	浮山書院	규암면 진변리		1719	1719	
	滄江書院	부여읍 저석리		1629	1696	문화재자료 107 (84.5.17.)
	七山書院	임천면 칠산리				문화재자료 102 (84.5.17.)
	三忠祠	부여읍 관북리				문화재자료 115 (84.5.17.)
	義烈祠	부여읍 동남리	顯義祠	1575	1578	문화재자료 114 (84.5.17.)
	彰烈祠	구룡면 금사리	彰烈書院	1717	1721	기념물 22 (79.12.19.)
	淸逸祠	홍산면 교원리	淸逸書院	1621		문화재자료 93 (84.5.17.)

시·군	명칭	소재지	舊·別名	창건연대	사액연대	문화재 지정번호(지정일)
서천군 (5)	建巖書院(址)	문산면 지원리	鳴谷書院	1662창건 1709이건	1733	
	文獻書院	기산면 영모리		1594	1611	문화재자료 125(97.12.23.)
	劍山祠	비인면 구복리				
	栗里祠	비인면 울리	옛世德祠	1900		문화재자료 303 (88.8.30.)
	淸節祠	비인면 남당리	淸節鄉祠	1710		
청양군 (3)	龍溪書院(址)	남양면 대봉리		1716	1724	
	慕德祠	목면 송암리		1914		문화재자료 152 (84.5.17.)
	表節祠	운곡면 모곡리		1959		문화재자료 154 (84.5.17.)
홍성군 (2)	魯恩書院(址)	홍북면 노은리	綠雲書院	1675	1712	
	惠學書院(址)	대교리 교동(?)		1706	1722	
예산군 (5)	德岑書院(址)	예산읍 덕잠골		1705	1714	
	晦庵書院(址)	봉산면 봉림리		1709		
	蘇都督祠(址)	대흥면 상중리		고려		
	牛泉祠宇	대흥면 교촌리	牛井祠	1708		
	忠義祠	덕산면 시량리		1917		
태안군 (1)	崇義祠	남면 양잠리		1851		문화재자료 300 (88.8.30.)
당진군 (2)	東岳書院(址)	송산면 명산리	鄉賢祠	1706		
	忠壯祠	대호지면 도이리		1636정려		문화재자료 215

(2) 제례관련 문화자원

유교문화에서 다루는 의례는 관혼상제로 대표된다. 이 중에서도 제례에 대한 격식과 관심은 각별한 것이다. 제례를 행하는 시설로는 수도(한양)의 종묘, 성균관 또는 향교의 문묘 그리고 민가의 사당 및 재실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묘를 건립하도록 법률로 엄격히 규율한 때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양반계급의 고택에는 대부분 사묘가 있었던 것이 상례이다.

제례관련 문화재로는 사당, 영당(영정), 재실, 명현묘소와 묘비(신도비) 등을 들 수 있다. 충남의 제례관련 지정문화재로는 박문수 영정(보물), 이색영정(보물), 계룡산 중악단(보물), 이충무공 묘(사적), 칠백의총(사적), 홍주의 사충(사적)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로 11

건(연평부원군 신도비, 보령유격장군창덕비, 서산김두장묘비, 익성군신도비 및 묘비, 김계휘신도비, 김시습영정, 부여김동효영정, 체제공선생영정, 청양 영모재, 전운상영정, 정일상영정 및 한유도 등), 기념물로 16건(신자경선생묘, 홍대용선생묘, 송선군묘, 영규대사묘, 김종서장군묘, 계룡산초혼각지, 김좌진장군묘, 김옥규선생유허(묘), 김장생선생묘소일원, 전득우묘, 이색선생묘 일원, 이광윤묘, 최익현선생묘, 남연군의 묘, 도응선생묘 일원, 남이홍장군묘 등), 문화재자료로 58건이 있다. 충남의 고택 가운데에는 11건의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 4건의 유형문화재, 1건의 기념물, 10건의 민속자료, 9건의 문화재자료가 있다.

이와 같은 제례관련 문화공간에서는 조상숭배 생활체험으로 조상제례 및 접빈객 의례 재현, 진설도 실습 및 제향의례 재현, 다담상 재현, 불천위제사 재현, 세일사(시제) 제향 교육 및 재현 등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재실은 주변의 고택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체험교육을 위한 민박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윤리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재로는 충효열 정려, 충효열 관련 문서, 기타 충효열 관련 시설물을 들 수 있다. 충남에서는 유관순열사 유적과 매헌 윤봉길의사 사적지가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광남군 이광악 선무공신교서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도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로 공주소학리 효자향덕비, 고정리 양천허씨 정려, 연기군의 효교비, 화순옹주 홍문, 예산 이성만 형제 효제비가 있으며, 기념물로 금산 이치대첩비가 있고, 그 외 문화재자료로 15건이 있다. 충효열 정려와 같은 윤리관련 문화자원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격전지 등 역사적 장소에서는 충효정신교육, 체험교육 등 청소년 수련이 가능하고, 충·효·열 정려는 효체험행사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교유관련 문화자원

조선시대 선비들의 교유시설로는 누정이 있다. 정(누)각은 교류 및 강학의 장이자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기도 하다. 교유시설은 마을 공동 또는 개인이 설치하기도 하며 그 활용 또한 마을공동 또는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의 교유관련 시설 가운데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한 건도 없고, 도지정 문화재로 공북루, 여민루, 임이정, 팔패정, 종학당(정수루, 숙사), 경이정, 목애당 등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14건의 문화재 자료가 있다. 교유시설은 대부분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3) 연계관광 자원화

유교 관련 공간과 행사를 연계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체험 및 학습시간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다양한 문화체험과 관광자원 다원화수요 팽창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유교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경우, 지역별·주제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상생·특화시키고, 건물과 문화재 외에 다양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강하며, 유형별·주제별 체험과 탐방코스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연계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는 개별 유적으로서 향교와 서원 등 유교자원은 지역별로 분산적이고, 다양하며 계열성도 희박하여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과 메리트는 매우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를 선정 집중 육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는 ① 다양한 다른 자원들과의 경쟁력을 고려한 특화, ② 충절인물, 학맥, 교육과 강학, 저술 관련 유적·유물 연계, ③ 전통가옥과 의례, 민속마을, 동족마을 연계, ④ 묘소, 풍수, 취락경관 연계, ⑤ 일반 문화관광자원의 하나로 단순 연계하는 방안만이 아니라 광역문

화권의 정신사, 지성사를 배태한 기반으로 부각하여 연계하는 방안, ⑥ 광역문화권의 문화 특징 중 특정분야(학술, 교육, 인물 등) 자원으로 부각하여 연계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 건물·문화재라는 단편적 의식을 탈피하고, 정신사·문화사라는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자원화해야 한다.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향교·서원의 교육과정도 사실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거나, 제례와 의례도 정치·사회활동의 측면에서 제례만이 아닌 생활의례로서 향약·향음주례·향회 등의 자료를 찾아 재생해야 한다. 인물에 대한 자료와 설명도 높은 벼슬이나 행적도 좋지만, 사상·저술·전설·일화, 특히 각 지역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사실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향약과 소학·사창문제, 향안·향규·유향소와 관련되는 지역세력의 결집과 갈등문제, 의병·구국활동 양상, 그리고 당파와 학맥문제 등이 정리되어야 하며, 건축물 이외의 고문서나 전적, 금석문, 지명, 전설 일화까지 확대하고, 제례와 혼례에 한정된 의례들도 향약례나 향음주례·향사례, 동계 동약 의례, 향회, 문중회의 등으로 넓히고, 종가의 음식이나 종부의 삶, 동족촌락의 공동체 문화 등이 어우러진 종합문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충남의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답사코스는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논산시 연산면 일원과 노성면 일원, 아산-예산 지역의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답사코스를 제시한다.

(1) 논산시 연산면 일원

○ 답사 코스

: 돈암서원 - 고정리 종가·재실 등 - (계백장군묘역) - 충곡서원

○ 특 정

- 도보답사가 가능한 3~4km 구간에 밀집하고 있는 충청도의 대표적 유교유적지임
- 돈암서원에 숙박이 가능하며, 교육·학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함
- 고정리 일원에 다수 분포하는 재실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별도의 시설 건립 없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 가능함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되, 노성면 코스와 연계하면 2~3일 답사코스로 개발이 가능함

○ 자원 현황

- 돈암서원 (충청남도 지정 사적 제383호) : 1634년에 창건되었고, 조선 고종조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도 철폐되지 않았다.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계 김장생, 신독재 김집,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을 모셨으며, 호서와 호남 북부를 영도하는 위상을 가졌었다. 원래 임리 ‘숲말’에 위치하였으나, 침수의 피해로 1881년 현 위치로 옮겼다. 4명의 명현을 모신 사당은, 첨차를 2층으로 올린 공포, 그리고 장식성이 강한 요소들을 응용하여 위계를 높이려는 의도로 건축되었고, 강학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응도당은 예서(禮書)의 구조를 그대로 고증한 건축양식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외에 양성당, 정회당, 장판각 등의 건축물이 남아 있다. 현재 한국 철학, 한국사 등을 전공하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 강독하고, 학술모임을 개최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

- 고정리 종가·사당·묘역·재실 : 고정리 일원은 광산 김씨 일문의 세거지로서, 고가, 사당, 묘역, 재실 등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유교문화유적의 보고이다. 부조묘(不祧廟)로는 정정공(丁靖公) 김국광(1415~1480)의 사당, 사계 김장생의 사당, 재실로는 모선재(慕先齋), 영사재(永思齋), 염수재(念修齋), 영모재(永慕齋) 등이 있으며, 열녀 양천 허씨 정려(烈女 陽川許氏 旌閭,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09호), 효자 김재경 정려가 있고, 묘역 일원은 도 지

정 문화재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되었으며, 김장생·김점광·김계휘 등의 신도비가 있다.

- 충곡서원 : 광산 김씨 묘역이 위치한 고정리 고정산 너머 탑정저수지와 인접한 부적면 충곡리에 위치한 서원(도 지정 기념물 제12호)이다. 1692년 창건 당시 계백(階伯)을 비롯한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김익겸(金益兼) 등 8인을 제향되었다. 계백과 사육신은 한국의 대표적인 충신이며, 광산 김씨 또한 병자호란때 강화읍성에서 순절한 인물이다. (후에 10인을 더하여 지금은 18인을 봉안하고 있음)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35년에 이르러 사우만 중수하였는데, 1977년 대대적으로 복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웃에 계백장군의 묘로 전해지는 무덤이 있으며, 최근 대대적인 성역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 논산시 노성면 일원

○ 답사 코스

: 노강서원 - 장구리 유적 - 병사리 묘역 - 교촌리 유적

○ 특징

- 가까운 거리에 관련 유적이 밀집한 충청도의 대표적 유교유적지임
- 교통이 불편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천안-)공주-논산 간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내방객의 집중이 예상됨
- 병사리 재실 등을 이용한 숙박이 가능하며, 교육·학술 활동과 연계가 가능함
- 종학당의 전통교육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유지·존속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개방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시킨 살아 있는 전통 교육 프로그램의 계발·운영이 가능함

- 당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개발하되, 연산면 코스와 연계하면 2~3일 답사코스로 개발이 가능함

○ 자원 현황

- 노강서원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30호) : 1675년에 창건되었고, 서원철폐에도 충청도에서 돈암서원과 함께 철폐되지 않았던 서원이다. 노성을 세거지로 삼았던 소론의 핵심 파평 윤씨 일문의 명현 4인(윤황·윤문거·윤선거·윤증)이 모셔진 곳이다. 4인을 모신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이며, 정면 5칸, 측면 3칸, 그리고 가운데 대청마루 3칸의 강당, 동·서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성면 장구리 고택·사당·묘역 : 조선 영조 때 이축(移築)한 윤황선생 고택(도 지정 민속자료 제8호)은 대대로 종가로 사용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이진한 것으로 추정되는 윤황 사당, 신도비 등의 잘 보존되어 있는 윤황선생 묘소 일원(논산시 지정 향토유적 제 11호) 등이 전해진다.

- 노성면 병사리 학당·묘역·영당·재실 : 병사리 묘역 아래에는 1744년 창건된 명재(明齋) 윤증을 제향하는 유봉영당(酉峰影堂, 도 지정 문화재 자료 제280호) 및 재실[敬勝齋]이 전해진다. 영당은 조선조 건물 양식으로 크게 훼손되지 않고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종학당(宗學堂)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도 후손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통 교육을 실시하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전통이다. 종학당과 이웃한 묘역과 재실[丙舍]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 노성면 읍내리·교촌리 향교·서원·고택·정려·유품 : 옛 노성 고을의 향교와 윤증 선생 고택(국가 중요민속자료 제190호)가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다. 윤증 고택에 소장된 일괄 유품은 또한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22호로, 소장 책판은 논산시 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어 중요성이 더해진다. 교촌리 입구에는 윤증 선생의 모친이었던 공산 이씨 정려가 위치한다. 한편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는 공자(孔子)의 영정을 봉안

했던 켈리사(도 지정 기념물 제20호)가 남아 있다.

(3) 논산시 연산면-노성면 연계 방안

○ 답사 코스

: 돈암서원 - 고정리 종가·재실 등 - (계백장군 묘역) - 충곡서원 -
노강서원 - 장구리 유적 - 병사리 묘역 - 교촌리 유적

(4) 아산시 남서부-예산시 북동부 일원

○ 답사 코스

: 아산시 온양민속박물관·맹씨행단·외암민속마을 -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방산리 - 신암면 추사 관련 유적

○ 특 징

-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과 관련된 유적들이 다수 분포 (추사, 고불)
- 체류형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지역이 많음 (외암민속마을, 상항·방산)
- 최근 내방객이 급증하는 추세의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음 (외암민속마을, 추사고택 등)

○ 자원 현황

- 맹씨행단 (국가 지정 사적 제109호) : 아산 설화산 기슭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이다. 원래 고려 말 최영 장군의 집이었다고 하며, 그의 손녀 사위 고불 맹사성에게 물려주었다고 한다. 고택, 구과정, 은행나무 두 그루를 망라해 일컫는 이름이다. ㄷ자형의 맞배집으로 목재는 광솔이 되다시피 그을렸다. 안채 뒤편에는 맹사성과 부친 맹희도의 위

패를 모신 사당이 있다. 관련 유품도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25호로 지정되어 있다.

-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6호) : 예안 이씨의 집성촌으로, 참판댁(중요민속자료 제195호)와 건재고택(同 233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복원된 초가와 돌담길이 전통 마을로서의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관련 유품이 일괄로 전해지면서 전시관 건립이 진행중이다. 호서 반촌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최근 내방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마을 청년회를 통한 각종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검토되고 있다.

-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와 방산리 유교 자원 : 상항리 이남규선생 고택 (도 지정 有形文化財)과 방산리 이광임선생 고택(도 지정 有形文化財), 그리고 조경학적 가치가 높은 아계 이산해선생의 묘역과 관련유품, 2개의 정려가 전해진다. 이웃한 상항리의 석불(石佛, 도 지정 有形文化財)과 장복리 삼층석탑 (문화재자료)가 있다. 경관이 수려하여 답사코스로 손색이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개발 사업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추사 관련 유적 :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과 선대의 관련 유적이 밀집한 유적지이다. 영조의 차녀 화순옹주와 혼인한 월성위가 하사받은 집으로 ‘궁말’이라는 지명 또한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영당, 안채, 사랑채, 대문간이 남아 있으며, 그 외에도 추사가 심었다는 백송, 월성위와 화순옹주 내외의 묘소, 화순옹주의 정려, 사의 묘소, 원찰이었던 화암사 등이 전해진다. 최근 기념관이 건립되고, 주변 진입로 또한 정비되었으나, 인근 간선도로망이 미흡하여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예산읍·삼교읍·고덕면·덕산면 등에서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5) 대전 - 강경간 답사코스

○ 답사코스

： 대전 우암사적공원 -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 동학사 - 논산시 연산면 - 논산시 강경읍

○ 특 징

- 호서 유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서인-노론 학맥의 적통에 해당되는 인물들의 관련 유적을 볼 수 있는 답사코스임
- 특히 정통론에 입각한 노론계의 사상적 경향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임 (※ 앞으로의 연구과제이기는 하나, 노론계 주도 정국에서 존숭되었던 삼은(三隱)·최영·김종서·사육신 등의 인물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대표적인 충절로 숭상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주도 인물들은 망국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왜곡, 평가절하되고 있음)
- 대전시의 우암과 동춘당 관련 유적은 근린공원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자원 현황

- 우암사적공원 : 대전 자양동에 위치한 우암사적공원은 우암 송시열(1607~1689)과 사육신의 하나인 박팽녕 선생이 살던 곳을 공원화한 지역이다. 남간정사와 기구정은 말년에 낙향하여 건축한 서재 겸 후학 교육의 장소였으며, 지금 남간사에는 우암 송시열, 수암 권상하, 석곡 송상민 세 분을 모시고 있다. 그 외에 이직당, 심결재, 견뢰재, 명숙각, 인함각 등이 복원되어 있으며, 1907년 화재로 소실되었던 판목을 복원하여(1929년) 보관하는 장판각, 유품을 보관·전시하는 유물관 등이 있다. 대전시민의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하나, 연못과 시냇물, 우람한 고목, 소나무, 대나무 등이 함께 어울려진 옛 정원까지 다시 조성되었다.
- 동춘당 (보물 209호) : 송준길이 자신의 호를 따서 1653년 건축한 별당

으로 대전 송촌동에 위치하고 있다. 편액은 송준길이 세상을 뜬 뒤 6년째 되던해(1678년)에 우암 송시열이 친필로 쓴 것이다. 별당 서북쪽에는 사당·사랑채·안채 등으로 된 고택도 남아 있다. 송촌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근린공원(약 17,000평)으로 조성하였으며, 연못 3개소, 민속그네, 화장실, 팔각정, 간이체육시설, 벤취, 음수대 등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매년 4월 동춘당문화제가 거행되고 있다.

- 공주시 반포면 충현서원 (도 지정 기념물 제46호) : 1581년(선조 14)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서원이다. 현재 1925년에 복원한 사당을 중심으로, 그 앞에 2기의 서원비(書院碑)와 하마석(下馬石), 그리고 최근에 세워진 강당과 관리사가 남아 있다. 창설당시 주자(朱子)가 중앙에 모셔지고, 공주의 석탄 이존오 등이 배향되었는데, 후에 조현·김장생·송준길·송시열 등을 추가로 모시고, 최근 서원 창건에 핵심 인물이었던 고창 서기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 고창 서기가 제자를 교육하였다고 하는 연정 옆의 연못은 모두 메꾸어졌다. 그의 출생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지는 공암굴은 무속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아들을 비는 부녀자들의 기도처였으나, 최근 기독교 신자가 개인적인 기도처로 점거하고 있다.

-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 경내 숙모전 (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67호) : 동학사 입구에 위치한 사우로서, 1456년에 창건되었으며, 원래 숙모전(肅慕殿)과 삼은각(三隱閣)·동계사(東鷄祠)가 함께 있었다. 숙모전은 원통하게 죽은 어린 왕 단종과 세조에게 항거한 충신 열사의 혼을, 삼은각은 고려말의 충신 포은 정몽주·목은 이색·야은 길재의 위패를, 그리고 동계사는 신라 눌지왕 때의 충신 박제상의 충혼을 기리는 제각이다.

- 논산시 연산면 돈암서원 인근 관련 유적 : (생략)

- 논산시 강경읍 사계·우암 관련 유적 : 강경읍내 황산포구가 있었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 죽림서원(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75호)과 관련 유적들이다. 서원은 1626년 창건되었는데, 조광조·이황·이이·성혼·김장생·송시열 등 6인을 모셨으며, 서원훼철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965년 복원하였

다. 사우(10평), 동재(憲章堂, 15평) 등이 남아 있다. 서원 창건의 직접적 동기는 사계 김장생이 왕래한 자취가 있기 때문이라 하며, 은진 송씨의 원거지였던 곳이다. 이웃한 임의정(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67호)은 사계 김장생이 후학을 교육하던 곳이며, 팔괘정(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76호)은 우암 송시열이 율곡 이이를 추모하며 건립하여 후학을 교육하였다고 한다. 현재 주변에 민가가 밀집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충남지역은 조선시대 한국유교문화의 중심지였다. 고려말 성리학을 가장 먼저 연구·보급한 사람은 충남 남포 출신의 백이정(白頤正)이었으며, 성리학 보급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한산의 이곡(李穀, 298~1351)·이색(李穡, 1328~1396) 부자를 꼽을 수 있다. 16세기 충남의 이지함(李之函)·서기(徐起)·홍가신(洪可臣) 등은 화담 서경덕 계열의 인물이었지만, 17세기 충남지역은 율곡 이이의 학통이 주류를 이루었다. 17세기 이후 3세기간 중앙정치와 성리학계를 주도한 인물은 대부분이 호서(충남) 출신이었다. 충남에서는 기호(율곡)학파의 중심인물을 다수 배출하였으며, 인물성동이론을 주도한 남당 한원진과 외암 이간도 충남출신이었다. 또한 17세기 산림(山林)도 38명 중 17명이 충청도출신이었다. 따라서 충남에는 유·무형의 많은 유교문화자원이 남아 있다.

충남의 지정문화재 817점[국가지정 문화재 202점, 도 지정문화재 325점, 문화재자료(도지정) 290점] 가운데 유교문화재는 346점[국가지정 문화재 43점, 도 지정문화재 147점, 문화재자료 156점]에 달한다. 지정된 유교문화재의 지역별 분포는 논산, 부여, 공주, 아산, 예산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국가지정 유교문화재가 아산에 많은데, 이는 이충무공 관련 유적·유물과 외암리를 중심으로 한 고택이 있어서이며,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교유적은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많이 남아 있다.

최근 유형의 부동산 문화유적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시·군마다 500여건의 문화유적이 보고되었다. 이 가운데 약 30%는 유교문화자원이고, 그 중 20~30% 정도가 지정문화재이다. 충남 유교문화자원은 다른 시·도에 비해 향교·서원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아직 체계적인 조

사가 미진하기는 하지만, 충남내륙지역에 유교문화의 핵심자원이 분포하고 있어서 향후 이 지역의 집중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교문화재는 유형문화재만이 아니라, 동산문화재와 무형의 정신문화자원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교문화재의 도지정문화재 지정과정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미흡하며(고고학, 미술사 중심), 건축사 중심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수 증가와 전문분야의 고른 안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문서, 문적 등 관련 문헌자료 검토와 함께 정신문화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일운동이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근대 문화재의 지정에는 정신문화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향교·서원의 경우에도 그곳을 거쳐간 인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재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 20여년간의 문화재 보수 사업비의 15%가 유교문화재에 사용되었다. 특히 향교·서원의 보수에 60% 이상 투자되었다. 이제 건물보수 중심의 관리실태를 지양하고, 유교문화자원 가운데 고문서·전적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수집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형의 유교문화자원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형의 유교문화공간에서 과거에는 많은 유교의식, 교육, 교화 등이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향교와 서원 등에서 있었던 유교의례와 교육, 전통시대의 정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동구밖에 위치했으나, 현재는 대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정려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

이제 문화재정책은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할 시기이다. 단순한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절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교문화재(자원)는 그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현대적 활용이 가능하다. 충남 유교문화자원의 활용은 충남 유교문화의 특장을 최대한 살린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유교문화자원의 현대적 활용은 교육관련 문화자원, 제례관련 문화자원, 윤리관련 문화자원, 교유관련 문화자원 등 유형

별로 본래의 기능을 살린 활용을 도모함이 효과적이다. 또한 연계관광 자원화, 유교문화 유적지 답사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교문화자원의 핵심분야인 향교·서원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인 특성 조사와 연구를 통한 현대적 활용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봉원, 「미국의 문화재관리현황과 과제」, 『문화재관리-동서양의 현황과 과제』, 제40회 대학박물관협회 학술발표회 요지, 1997.
- 김희정,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동석, 「한국 문화재 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준홍, 「관광자원으로서 문화재(유·무형)이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오장홍, 「문화재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원식, 「고도의 보존 및 개발촉진 방안 : 경주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최준구, 「문화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연구-보은군을 중심-」, 1996.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연구 발전계획 및 중장기 사업추진계획』, 2000.
- 문화재관리국, 『동산문화재관리편람』, 1994.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연보, 1-14호(1988-2001년)
- 문화재연구소, 『21세기와 문화재연구』, 1999.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중장기 계획』, 2000.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집 천원군·서천군·보령군·예산군·연기군편), 1986.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2집, 공주군편), 1988.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3집, 부여군편), 1989.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4집, 논산군편), 1990.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5집, 아산·온양시편), 1991.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6집, 당진군편), 1992.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7집, 천안시·천안군편), 1993.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8집, 청양군편), 1995.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9집, 예산군편), 1995.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0집, 서천군편), 1996.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1집, 보령군편), 1997.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제12집, 연기군편), 1999.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방자치시대의 문화유산 보호와 과제』, 1997.
-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2000.
-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금석문편), 1993.
-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성곽·관아편), 1991.
-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공주시』, 1998.
-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보령시』, 1999.
-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태안군』, 2000.
- 충청남도·충남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부여군』, 1998.
-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논산시』, 1999.
-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천군』, 2000.
-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산군』, 2001.
- 학연문화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한 중 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1998.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유산 관광상품화방안』, 1996.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문화재관리-동서양의 현황과 과제』, 제40회 대학박

물관협회 학술발표회 발표요지, 199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우리 민족문화창달을 위한 향교와 서원기능의 현대
적 활용방안』, 2002.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1999.

■ 집 필 자 ■

임 선 빈(任先彬)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문학박사(한국사 전공)

기본연구과제 2002-07

충청남도 유교문화자원의 현황과 관리방안

발 행 자 : 김 대 길(충남발전연구원 원장(직))

발 행 일 : 2002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충남발전연구원

302-120 충남 논산시 두마면 금암리 10번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3층

전화 : (042)841-9903

팩스 : (042)841-9905

인 쇄 처 : (042)-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ISBN : 89-89552-21-4 93910

<비 매 품>